Entertainment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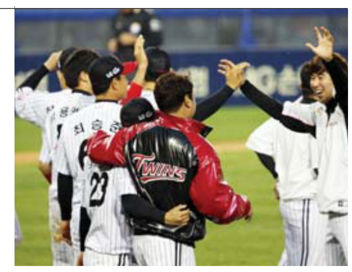


YG패밀리 투어 공연 끝내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제308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LG 가을야구 거침이 없네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각계각층의 질타를 받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단통법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경쟁 위해 제4이통 검토해야

정부 개입 국민을 '호갱'만들고 기업엔 부담 안겨
보조금 규제에 집중, 통신비 인하 실효성 사라져

단통법 논란, 문제점과 대안

[글 싣는 순서]
①자유시장 경쟁체제에 맡겨라
②분리공시 도입은 이통사 배불리기?
③가계통신비 인하, 실질적 해법은

최근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가입비 폐지, 기존 요금제 혜택 강화와 신규 요금제 출시, 멤버십 혜택 강화 등 대책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갤럭시S 4 LTE-A, G3비트 등 일부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했다. 제조사는 향후 출고가 인하 모델을 추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일각에선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단통법으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를 민간 기업이 해소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실책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결국 민간 기업에 해결책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통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을 불러 단통법 이후 보조금 인상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실패한 법안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 국민을 '호갱님(호구+고객님)'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진정한 국민 혜택을 위해서 정부는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시장 경쟁을 촉발하는 매개로서의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조금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소비자 이익을 위해 보조금 규모는 이통사의 자율경쟁에 맡기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약정기간에 따라 공짜로 팔릴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을 늘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처럼 오히려 국민 혜택 강화를 위해서 정부 개입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알뜰폰의 판로 확장을 위해 우체국에서 알뜰폰 판매 서비스를 시작한 것처럼 자유시장 경쟁을 도울만한 법 체계만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우체국 알뜰폰의 경우 판로 확대뿐 아니라 알뜰폰의 이미지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후 1년 새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는 13만 3000여명을 유치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도 400만명을 넘어서며 이통 3사와의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일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알뜰폰처럼 기존 이통사와 경쟁 체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제4이통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4이통이 출범하면 이통사 간 경쟁을 촉발해 통신비 인하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7월 한국인터넷모바일(KMI)은 여섯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하며 제4이통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실망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연내 제4이통에 도전장을 내밀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3월 이후 제4이통 허가 신청 절차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제4이통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이 저렴한 요금제로 시장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지나치게 보조금 규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면서 "최근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출시에 따른 국내 이통사와 제조사의 대응 움직임처럼 자율시장 경쟁을 강화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혜택은 늘어나고 긍정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설악산 단풍 인산인해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6일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에는 곱게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3만여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설악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소공원까지 내려온 단풍을 감상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 불법행위 매년 35만건

4년6개월간 164만건… 취객 가장 많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취객과 이동상인 등의 불법행위가 매년 3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간 지하철 불법행위는 모두 164만 36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5만 7812건 ▲2011년 34만 8293건 ▲2012년 38만 9777건 ▲2013년 38만 1985건 등이다. 올해도 6월까지 16만 5789건의 무질서 행위가 적발됐다.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취객(47만 3090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28.8%를 차지했다. 취객 다음으로는 ▲이동상인(40만 1542건) ▲불법 광고 배포(13만 8007건) ▲흡연(8만 2256건) ▲종교 전도(3만 8628건) ▲방뇨(3만 3594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흡연과 취객행위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과태료 등 처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dh@

임금근로자 35% 비정규직

1년 뒤 10명 중 1명 정규직 전환… OECD 최하위

국내 임금 근로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1분기 34.6%(633만1000명), 2분기 35.3%(663만명), 3분기 35.5%(669만9000명)로 소폭 상승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4.4%까지 오른 비정규직 비율은 ▲2009년 42.9% ▲2010년 40.6% ▲2011년 38.7% ▲2012년 37.3% ▲지난해 35.6% 등으로 하향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은 소폭 하락세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 여전히 비정규직인 비율은 69.4%, 실업자가 된 경우는 19.5%로 조사됐다. 이는 영국·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1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3년 뒤' 기준으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22.4%, 여전히 비정규직이 50.9%, 실업자 전락은 26.7%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국감 불출석 논란' 김성주 귀국… 무슨 얘기?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논란이 되어온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26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마중 나온 관계자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김 총재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이다 보니 국감 출석과 관련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는 말과 함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27일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vs 개헌론 여야 대표 30일 메시지 대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30일 연달아 정기국회 대표 연설대에 오른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된 가운데 일정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일정으로, 여야는 주말 동안 대표연설 초안 작업에 집중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다음날 대표연설이 잡힌 만큼 시정연설 내용과 최대한 맥을 같이 하도록 대표연설 메시지를 가다듬을 방침이다.

특히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조원의 적자 구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 연금 제도를 손보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붙은 개헌 논쟁,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정책, 공무원 연금 개혁,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남북 긴장 관계 등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실책을 질타하는 데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 전반적인 정치가 나아갈 방향,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더 강조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담당 안행부 국장 교체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안전행정부의 담당 국장이 중도 교체됐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담당 국장인 박재민 성과후생관이 24일 본부 대기발령에 따라 보직에서 물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박 국장의 대기발령은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한 국민 포럼을 개최한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국장의 후임은 최관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될까

오늘 승무원 15명 포함 결심 공판 열려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2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이준석 선장 등의 살인죄를 인정해 사형 구형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최근 공소장을 변경해 관련 내용을 보완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최고형에 근접하는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판에서 유가족 등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검찰의 구형량 결정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지도 주목된다. /윤다혜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시·도지사들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의원,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최문순 강원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예산·입법 전쟁 본격화

국감 마무리… 여야 경제활성화법 등 충돌 예고

27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새해 예산안 심사·세월호 특별법 협상·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쟁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28일부터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야는 경제활성화 관련법,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당·정·청은 실물 경제 등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서비스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이달말까지 처리하기로 한 세월호 3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는 10월말로 여야 합의된 세월호 3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후보군 추천 때 세월호가족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새정치연합과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도 핫이슈 중의 하나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더 내고 덜 받는' 여당 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수정안도 준비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2일 자동상정 된다. 시간이 빠듯한 데다 예산안과 세법 등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커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정우기자 cyclone@

정의화 의장, 아베 면담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하기 위해 26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이부키 분메이 일본 중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이날부터 2박3일 동안 일본을 방문한다.

27일 오전 이부키 중의원 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을 차례로 만난 뒤 오후 아베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통해 "대화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면담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이라 할 역사인식 문제에 관해 진전된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전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결자해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번 방문에는 새누리당에서 김태환 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심윤조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문정림 신의진 의원·의장비서실장인 김성동 전 의원·최형두 국회 대변인이·야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동행한다. /윤다혜기자



안중근의사 의거 105주년을 기리며 26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5주년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기념공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치료 뒤 회복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집에서 회복을 위해 쉰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백모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등 사고로 취업 활동을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눈을 찔려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등 병을 얻었다. 백씨는 공단과 소송을 벌여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휴업급여는 거의 지급받아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윤다혜기자

개인회생 신청 10만명↑

역대 최고치… 법인 파산도 4년새 2배 증가

가계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 수도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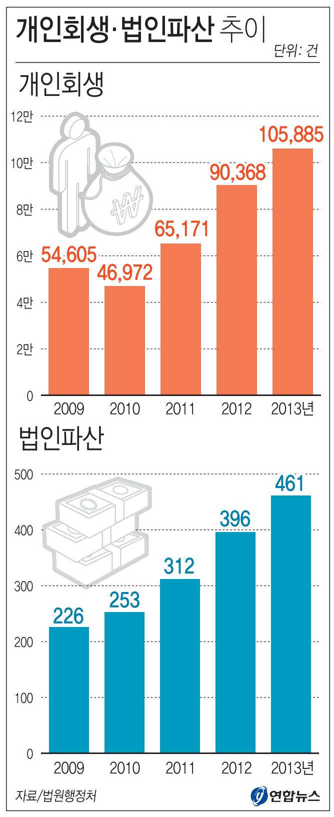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546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6468건이었으며 이 중 상해·폭행이 5459건(8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협박이 478건(7.4%), 재물손괴 423건(6.6%), 유기·학대·아동혹사 3건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8.9%, 50대가 30.6%로 집계됐다.

폭력을 휘두른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이 24.5%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분노 21.4%, 부당한 대우·학대 17%, 취중 7.6%, 부정행위 2.9% 등으로 나타났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쓰고 옥살이 "국가가 1억23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수원 노숙소녀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모(22)씨 등 5명과 이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합해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원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망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종용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다혜기자 ydh@

한국복식학회 '패션과 창조문화'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복식학회(회장 최해주 한성대 교수·사진)는 25일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패션과 창조문화'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태완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장은 '창조경제시대 디자인의 역할'을,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은 '감성시대와 패션산업'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했다. 스페셜 세션에서는 이한상 대전대 교수의 '백제 귀금속장신구 문화의 전개'와 박성윤 휴비스연구소 소재개발부장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션섬유 소재' 특강이 이어졌다.

행사의 일환으로 다음달 2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The Origin of Style'을 주제로 의상전시회가 열린다.

"에볼라환자 7명 생존"

오바마, 공포 막기위해 안간힘… FDA 새 진단법 승인

"(텍사스주) 댈러스의 간호사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치료받은 미국인 7명 모두가 생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례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3일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귀국한 뒤 뉴욕에 머물던 의사 크레이그 스펜서가 에볼라 양성반응을 보이면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공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펜서가 에볼라 확진판정을 받기 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신속대응팀이 배치됐고 국방부 신속대응팀도 항상 대기하고 있다"며 여러 종류의 에볼라 대응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인 토머스 에릭 던컨의 가족들이 에볼라에 감염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는 쉽게 옮는 병이 아니라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체액과 직접 접촉해야만 감염된다"며 "공포에 좌우되지 말고 과학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과 뉴저지주에 이어 일리노이주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뒤 귀국한 사람들을 21일간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와 함께 시에라리온에서 근무한 뒤 24일 뉴어크 리버티 공항에 도착해 의무 격리 명령의 첫 적용 대상자가 된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는 "미국으로 돌아올 많은 동료가 범죄자나 죄수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제약사 바이오파이어 디펜스가 개발한 새로운 에볼라 진단법 2종을 25일 긴급승인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저도 사탕 주세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핼러윈 도그 퍼레이드'에 참가한 견공이 화려한 의상을 뽐내며 주인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미국 총격사건 여교사 목숨걸고 학생들 지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당시 한 여교사가 총격범에 맞서 싸워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은 범인인 제이린 프라이버그(15)가 총을 재장전하려 잠시 멈춘 순간 메건 실버버거(24) 교사가 달려들어 프라이버그의 팔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라이버그가 실버버거를 겨누려다 실패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이 학교에 부임한 실버버거 교사는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학생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2명은 프라이버그의 사촌으로 확인됐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도둑과 피해자 은행서 만나

metro HongKong

분실신고 처리 직원 발견



중국에서 도둑과 피해자가 한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본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장서시에 사는 한 남성은 집에서 현금 4000위안(약 70만원)과 통장 두 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다음날 분실신고를 하러 집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았다. 은행 직원 예루(葉露)는 먼저 데스크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그 사이 한 젊은 남성이 통장을 가져와서 현금을 인출하겠다고 말했다. 통장이 눈에 익은 예루는 뭔가 의심쩍어 통장 정보를 조회하면서 고객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남성은 1만위안을 인출하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자 두 번이나 잘못 입력했다.

예루가 통장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자 이 남성은 어머니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남성은 다른 통장에 뭔가 적혀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듯 했다. 이때 마침 방금 분실신고를 했던 고객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예루는 인출하려던 고객의 통장 정보와 분실신고를 하는 고객의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젊은 남성에게 정보를 확인했다.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감지한 젊은 남자는 바로 창구를 떠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예루는 주변 사람들에게 젊은 남자를 잡으라고 소리쳤다.

결국 도망가던 도둑은 은행 문 앞에서 피해자와 은행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붙잡혔다.

/정리=조선미기자

공공기관 '빗물 탱크' 설치

metro Brazil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상 베르나르두 지역 공공 기관 건물들에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적용된다.

상 베르나르두 시청에 따르면 앞으로 생기는 지역 내 공기관 건물에 빗물 저장 탱크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탱크에 저장된 물은 정원 물 공급 또는 청소 등에 사용된다. 이 조치는 물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상 파울루 주가 추진 중인 물 절약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한편 수압 시스템 교체가 필요한 건물들 또한 기존 장비를 더욱 효율적인 장치로 교체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12ℓ가 아니라 절반인 6ℓ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다. 상 카테아누 지역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물의 23%를 절약한 바 있다.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118상담센터, 대한민국 사이버 파수꾼!"

IT Cafe

이성수 센터장 "인터넷 침해사고 대처 중추…단독 예산 필요"


이성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118센터장이 '118상담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영 기자 son@

"118상담센터는 단순한 민원센터가 아닌 각종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등을 대처하는 '대한민국 정보보호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최근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 불법스팸이나 스미싱, 파밍 등 인터넷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가슴만 졸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가장 분주한 곳이 있다.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118상담센터다.

갈수록 급증하고, 고도화되는 개인정보침해, 인터넷 침해사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성수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 118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성수 센터장은 118상담센터를 한마디로 정의했다.

"118상담센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주는 정보보호 사관학교입니다."

현재 118상담센터 직원은 대부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관련 분야 상담의 경우 대부분 시급성,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상담원의 60% 이상이 정보보호·법 전공자로 구성됐으며, 90% 이상의 민원을 1차 상담에서 처리한다. 1차 상담에서 미처리된 민원은 변호사, 법학박사, 기술전문가 등 전문심화상담으로 처리 중이다. 현재 36명인 전체 상담원 모두 용역직원들로 구성됐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들은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인터넷 침해사고 등과 관련된 상담·신고접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이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지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 문제로 직원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도 매일같이 친절하게 상담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전화뿐 아니라 118상담센터를 직접 찾아 난동을 부리는 일도 빈번한데 이를 친절과 미소로 대응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118상담센터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 문제"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단독으로 배정된 예산이 없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등의 예산을 일부 가져다쓰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인력 충원도 요원하다. 단독 예산이 없다보니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이 민간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더 좋은 조건의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보안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이것이 118상담센터의 직원도 꾸준히 충원된다는 조건 하에서 선순환 구조를 보일텐데 예산문제로 이런 구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이 각종 민원 대처에 한계에 달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118상담센터의 상담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개소 이후 상담량은 매년 17% 증가했으며, 이 중 개인정보가 38%, 해킹·바이러스와 관련된 상담은 86% 증가했다. 누적 상담건수도 235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초 발생한 카드사·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각종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민간분야의 긴급신고번호 역할도 한다.

이 센터장은 결국 사이버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118상담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분야 상담센터의 경우 1인당 하루 평균 80~90통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118상담센터는 1인당 일 평균 120통의 상담을 하고 있다. 응대율 역시 최소 85~90% 이상 돼야 만족스런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데 인력 문제로 현재 80%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응대율이란 상담 전화 중 상담원과 연결이 이뤄져 상담이 완료가 된 비율을 말한다. 118상담센터는 결국 최소 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얻기 위한 다각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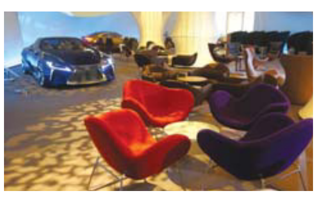
이 센터장은 "118상담센터가 단순한 민원센터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여기서 이뤄지는 상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각종 인터넷·정보보호 관련 사건·사고 패턴을 밝혀내고 대처 방법과 분석 등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예산지원 등이 적극 이뤄졌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다 중요성이 더해질 118상담센터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車대신 茶를 판다…토요타 'CONNECT TO'

지난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 새로운 명소가 등장했다. 한국토요타가 만든 'CONNECT TO'가 바로 그곳이다.



한국토요타가 토요타 본사와 공동으로 연구해 오픈한 이곳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전달하기 위한 브랜드 체험관이다. "자동차와 다양한 문화요소를 결합, 세련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토요타 측의 설명이다.

'CONNECT TO'라는 이름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다 ▲뜻 깊은 활동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연결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다양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최첨단 문화가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장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CONNECT TO'의 BI(Brand Identity)는 다양한 자동차 부품이 모여 마치 하나의 보석처럼 영문자 'C'를 구성하는 형태다. 사람과 자동차, 기업과 사회가 함께 교류하는 'CONNECT TO'의 핵심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토요타자동차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히다카 토시로 상무는 "한국시장에서 렉서스는 마이너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추면서 "차를 많이 팔기 위함이 아니라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만족감을 주고, 자동차와 여행, 예술, 패션, 음악 등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콘셉트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품을 모티브로 한 '휴식의 숲'이다. 자동차의 아름다운 보디라인에서 영감을 얻은 3차원 벽면, 다이내믹한 4개의 큰 나무를 나타내는 기둥과 함께 타이어나 핸들의 '원형'을 공간 전체의 구성 모티브로 삼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CONNECT TO'의 개념을 나타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1925.69	(–5.96)
코스닥	560.66	(–3.65)
금리(국고채 3년)	2.22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58.00	(+1.90)

뉴스&뉴스



'시럽'과 함께 에버랜드 할로윈 축제 SK플래닛은 에버랜드를 찾은 입장객들에게 '시럽 BLE 서비스'를 통한 '할로윈&호러 나이츠' 축제 특별 쿠폰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SK플래닛 제공

삼성맨이 꼽은 '최고의 책'

● 삼성맨이 꼽은 '최고의 책'은 무엇이었을까.

삼성그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난독증 환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도서 자선장터 '삼성인 책 나눔 북(BOOK)적이다' 행사에서 최치준 삼성전기 사장이 내놓은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가 8만8888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26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사업장 임직원으로부터 기증받은 1만7000여권의 책 가운데 1만권이 판매됐다.

특히 삼성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의 '후배 삼성인에게 추천하는 내 인생을 바꾼 책' 경매에서는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의 '왜 일하는가'(7만원), 김봉영 제일모직 리조트건설부문 사장의 '어떻게 배울 것인가'(5만5천원),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인간경영'(5만원), 김철교 삼성테크윈 사장의 '중국 3천년의 인간력'(5만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천국의 열쇠'(5만원) 등이 비싼 값에 팔렸다.

이번 자선장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 CEO 31명이 709권의 도서를 기증했고 이 중 23명은 추천사를 책에 직접 적었다. /박성훈기자 zen@

로또복권 제62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	2	6	16	19	42	9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359,723,50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38,060,057
3등	5개 숫자 일치	1,517,508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모바일 제조사 독자 스마트폰 AP 경쟁

애플·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 첫 AP 탑재 'G3 스크린' 출시

LG전자가 독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제조사 간 기술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4일 독자 AP 뉴클런을 첫 탑재한 스마트폰 LG G3 스크린을 출시했다.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 중 AP를 자체 개발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애플, 화웨이 정도였지만 이번 제품 출시로 LG전자도 합류했다.

AP는 모바일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통신 칩, 센서,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등 여러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핵심 반도체다. AP를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덕분에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LG전자 독자 AP 뉴클런.

현재 스마트폰 AP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스냅드래곤' 브랜드의 퀄컴이다. 퀄컴은 광대역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트(LTE-A) 등 이동통신망의 발전에 발맞춰 빠르게 부품을 내놓으면서 세계 시장의 4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이어 대만 업체인 미디어텍이 저가형 제품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시장점유율 25%를 기록하고 있다.

퀄컴과 미디어텍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전체의 65% 가까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만들지는 않고 칩셋만 만드는 업체들이다.

그러나 양사의 부품을 납품받았던 제조사들이 직접 설계한 AP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됐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에 직접 설계한 AP를 장착한다. A4에서 시작해 A8까지 출시된 애플의 AP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되고 있다. 화웨이도 자체 제작한 1.7㎓(기가헤르츠) '기린910'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라는 이름의 독자 AP를 만든다. 엑시노스는 주로 삼성전자의 국내 출시 스마트폰 제품에 사용되며 시장점유율은 5% 안팎이다.

여기에 LG전자까지 독자 AP '뉴클런'을 장착한 스마트폰 LG G3 스크린을 내놓았다. 아직 초기단계지만 LG전자의 자체 기술력을 본다면 시장 점유율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퀄컴의 독주를 막기에 역부족인건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점차 성장·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간 최적화와 부품-소프트웨어간 최적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자 AP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독자 스마트폰 AP를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 분야 경쟁이 점차 심화할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국내 제품 위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독자 AP의 성능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LG전자도 일정 시간에 걸쳐 시장 반응을 보고 안정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산업시찰 나선 ITU전권회의 참석자들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의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LG CNS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견학, 내진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 신입 연봉 4016만원…국토부 기관 1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직원의 1인당 평균연봉이 4000만원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구갑)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공항공사 신입직원 평균연봉은 지난해 3962만원보다 54만원 오른 4016만원을 기록했다.

2위는 대한주택보증으로 3577만원이었으며, 3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3576만원이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3곳 가운데 신입직원 평균연봉이 3000만원 이상인 곳은 12곳이었다. 2000만원대는 9곳이었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1789만원), 코레일관광개발(1851만원) 등 2곳은 2000만원 이하였다.

신입직원 연봉 1위인 인천공항공사는 전체직원의 평균연봉도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보다 많았다.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연봉은 8577만원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7667만원), 한국감정원(7650만원), 대한주택보증(7610만원), 대한지적공사(7505만원) 등에 비해서 크게 높았다.

한편, 지난해 10년차 직원 평균연봉 1위는 한국감정원으로 7762만원이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6224만원으로 2위였다. 3위는 대한지적공사로 6192만원이었다.

지난해 20년차 직원 평균연봉은 항공안전기술센터(9820만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주택보증(9442만원), 한국감정원(9033만원), 인천공항공사(878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관들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도 억대 연봉자가 상당하고 과도한 후생복리비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탁기자 kimdt@

3년간 1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 '120명'

2011년 최다 산재 사망기업으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지난 3년 간 산재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대형 건설사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기록된 산재 사망자 수는 총 120명이었다. 대우건설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안전관리가 가장 부실한 건설사로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2012년 7명, 2013년 9명 올해 7월까지 6명 등 총 22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의 뒤를 이어 ▲현대건설 17명 ▲GS건설 16명 ▲SK건설 14명 ▲포스코건설 13명 ▲롯데건설 11명, ▲삼성물산·대림산업 8명, ▲현대산업개발 7명, ▲한화건설이 4명의 산재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석현 의원은 "비교적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서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하도급 구조로 이뤄진 건설업 특성상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들이 산재근절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면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탁기자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할 혁신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SK텔레콤이 함께 합니다

SK텔레콤은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할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조적 아이디어에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더해
창업을 그저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업가들에게 힘이 되는 [BRAVO! Restart]로
대한민국 **창조경제**에 힘이 되겠습니다

브라보 리스타트(BRAVO! Restart)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을 통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의 ICT 역량을 통해 창업 시작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래를 다시 쓰다 | SK telecom

금융권, 'SKK' 전성시대 오나?

이순우, 김정태 이어 윤종규까지 3개 금융수장 성대 출신

금융권에 'SKK(성균관대)' 라인이 뜨고 있다.

성균관대 출신인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지난 22일 KB금융 차기 회장에 선임되면서 '성대 라인'이 재조명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고-서울대' 출신을 뜻했던 'KS라인'과 경제관료 출신 '모피아'가 득세해왔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권을 호령했던 고려대 인맥도 퇴조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내정자가 KB금융 회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성대 동문들이 3개 주요 금융그룹 수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광주상고를 나온 윤 내정자는 지난 1974년 상고생들의 꿈이라는 은행(외환은행) 입행으로 작은 목표를 이뤘다. 그러나 학업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은행을 다니면서 성대 경영학과(75학번)를 야간으로 졸업했다. 그는 지난해 모교를 빛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경영대 동문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러운 경영대학 동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4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제외하고,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모두 성대 출신이다. 이순우 회장은 성대 법학과(73학번)를 졸업했고, 김정태 회장은 성대 행정학과(73학번)를 졸업했다. 윤 내정자는 금융계에서 이 회장, 김 회장과 함께 'SKK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게 됐다. 이 회장과 김 회장은 성대 금융인 모임인 '성금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이 모임에는 한때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도 참석했다. 더욱이 이 회장과 김 회장은 내년 초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들이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성대 출신 지주사 회장 체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SKK 동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계에서 막강한 인맥으로 자리잡았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군산상고를 나와 은행을 다니며 성대 경영학과(70학번)를 졸업했다. 신 전 사장이 첫 금융계 CEO 자리에 오른 이후 후배들이 잇달아 최고경영진에 가세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도 성대 경제학과(76학번)를 졸업했다.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정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밖에도 금융권에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강원 우리카드 사장 등 성대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성대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연대 라인' 파워도 막강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경영학과 70학번)를 비롯해 김한조 외환은행장(불어불문학과 75학번),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영어영문학과 74학번)이 모두 연대 출신이다.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지난해 6월 취임한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연대 경제학과(78학번)를 졸업했다.

금융권에서 상고 출신 역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광주상고 출신인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정자를 포함해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도 대구상업고를 졸업했다. 이동대 제주은행장(선린상고)과 손교덕 경남은행장(마산상고) 등도 모두 상고 출신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KB, 3분기 순익 전년比 7%↑ 4561억

하나금융은 2944억으로 작년比 17.7% 감소

KB금융그룹의 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842억72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05%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4% 증가한 5조1734억6900만원, 당기순이익은 6.93% 신장된 4561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 2214억원이다.

KB금융그룹 측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2.0%, 2199억원 개선됐다"며 "이는 자산건전성 개선에 따라 3분기 누적 신용손실충당금이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1950억원)하고 지난해 있었던 교환주식 손상차손(1206억원) 등 일회성 비용이 소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B금융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경우, 3분기 당기순이익 35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75% 늘어난 수치다.

같은기간 국민은행의 매출액은 3조8453억8800만원으로 0.63% 줄었고, 영업이익은 4357억1400만원으로 4.68% 증가했다.

주요 자회사 중 하나인 KB국민카드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125억2700만원, 매출액은 7279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각각 23.75%, 2.81%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4.1% 감소한 850억2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294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635억원(17.7%) 감소한 수준이다.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90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전년 대비 순이익 하락은 주력 계열사인 하나·외환은행의 수익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하나은행의 연결기준 3분기 당기순이익은 환율 상승과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개시에 따른 충당금 전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95억원 감소한 2037억원으로 집계됐다.

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7602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28억원 증가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퇴직직원 인생설계 지원" 23일 KB국민은행 민영현 HR본부 부행장(오른쪽)과 노사발전재단 정용영중장년일자리 본부장(왼쪽)이 전직지원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국민은행 제공

하영구 씨티은행장 후임 오늘 결정

박진회 수석부행장 유력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도전했던 하영구 씨티은행장의 후임이 27일 결정된다.

26일 금융당국과 한국씨티금융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27일 오후 6시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금융계는 이변이 없는 한 박진회 수석부행장(기업금융그룹장)이 후임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행장은 하 행장의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 후배다.

2002년 한미은행 부행장으로 부임한 뒤 한국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한 뒤에도 줄곧 부행장 자리를 지키며 하 행장과 호흡을 맞춰왔다.

씨티은행은 행장후보추천위원회와 같은 날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행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하 행장은 지난 14일 KB금융 차기 회장에 도전하며 현 행장직에서 사임한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후임자가 정해지면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뒤 행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김민지 기자

'인공·체외수정 보장' 난임보험 개발 착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난임보험 상품을 개발 중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현대해상은 단체계약의 특약 위주로 난임보험 관련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 보장내용에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단체상해보험의 특약으로 난임보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체보험의 경우 기업들이 임직원의 복지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일정수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판매시기와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은 아직 검토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 Hi 현대해상

삼성화재는 고액의 보장관련 사항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고 보장 요건 등이 모호해 상품 출시를 꺼리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난관성형술, 체외수정 등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상품을 연내 출시하도록 각 손해보험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임보험은 35세 기준 1인당 연 3~5만원(잠정) 수준이며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몸값 올리기 vs 매각 철회"… 엇갈려

issue&view

현대증권 매각일정 연기 왜?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오릭스·파인스트리트·푸싱그룹 인수전 참여

현대증권 매각 일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매수자를 더 확보해 흥행성공을 노린다는 시각에서부터 '현대'란 상징성을 가진 현대증권 매각을 유야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대증권의 매각을 내년 1월로 지연한다고 밝혔다.

그전부터 매각 일정이 미뤄질 것이란 예측이 업계에서 계속 불거져 나왔으나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현대증권 채권단은 당초 24일 입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27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산은 측에서는 "내년 1월부터 다시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새로 매수자가 들어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홍 회장 역시 국감에서 일정 지연 사유에 대해 "현대증권의 가치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해 매각 흥행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됐다.

새로운 매수자들이 몇 군데 더 들어온다면 현대증권이 더 높은 값에 매각될 여건이 마련된다.

현재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가한 곳은 일본 금융그룹 오릭스와 국내 사모펀드인 파인스트리트, 중국의 푸싱그룹 등 3곳이다.

이들 매수 후보는 27일 본입찰 예정을 앞두고 실사를 마친 상태다.

오릭스는 지난 7월 현대그룹 물류부문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인수한 메리트가 있다.

광산·부동산업이 주력사업인 푸싱그룹은 중국 내 증권업을 영위하지 않아 국내 증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편 자금난을 겪던 현대그룹이 최근 자구안을 달성하면서 현대증권 매각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현대증권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벌여놓은 사업으로서 모태그룹인 현대건설과 함께 '현대'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업계 일각에선 현대증권이 현대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터라 쉽사리 매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과거 현대증권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차보다 많은 큰 인수가액을 적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가 끝내 자금조달 문제로 포기했던 전력을 봐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최근 현대그룹은 지난해 목표한 3조3000억원의 자구안 가운데 매각과 유상증자, 외자 유치 등을 통해 2조8000억원을 조달하며 자금압박 해소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 매각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가 유야무야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알리안츠생명,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 개최 알리안츠생명은 2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 연수원에서 '제43기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제공



'저소득 가정에 따뜻한 손길' NH농협은행은 최근 직원 봉사단인 'NH행복채움회' 회원들이 서울 행촌동에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상록 부행장과 직원들은 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한 부모 가정 청소년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 50곳을 방문해 쌀과 식료품 등을 전달했다. /농협은행 제공

서울보증, 첫 내부 출신 사장 선임되나

이수룡·김욱기… 김희태·김옥찬 외부후보와 경합 치열

SGI서울보증이 27일 사장선임과 관련,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내·외부 후보가 경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보증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는 20일 차기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외부 3명, 내부 출신 3명 등 6명으로 압축했다.

내부 출신으로는 이수룡 전 부사장과 김욱기 전 전무, 정연길 전 감사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 내부인사가 선임된다면 서울보증에는 사상 첫 내부 출신 사장이 탄생한다.

이 부사장은 대구공고, 영남대 법학과 출신으로 감사실장, 영업·보구상총괄 부사장을 지내는 등 회사의 주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전 전무는 성동고, 한양대 공업경영학과 출신으로 서울보증에서 특수영업부장, 강남지역본부장을 지낸 영업 전문가다. 해외 경험이 많은 정연기 전 상근감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외부인사로는 김희태 전 우리아비바생명 사장과 김옥찬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희태 전 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을 거쳐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을 역임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 우리은행 도쿄지점, 베이징법인 등 많은 해외 근무 경험도 강점으로 꼽힌다.

김옥찬 전 부행장은 최근 KB금융 회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자진 사퇴하면서 서울보증 사장에 선임 될 것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대추위는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한 명을 선정한 뒤 28일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생활 속 녹차 활용법은?

찐순이 주부 경제학

녹차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 기호식품이다. 팔방미인격인 녹차는 활용법 역시 다양하다. 음료로만 마시던 녹차! 녹차 티백, 녹차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녹차 활용법'을 알아보자.

녹차를 우려 먹고 남은 '녹차잎'은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녹차잎을 바싹 말린다. 그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망에 넣어서 냄새가 나는 집안 구석구석에 놓아두면, 퀴퀴한 냄새가 제거된다. 옷장에 넣어두면 곰팡이가 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녹차가루를 이용해서 화장품도 만들 수 있다. 녹차가루와 계란 노른자, 밀가루 등을 같은 양을 넣고 섞은 다음, 피부 위에 마스크팩 시트나 거즈를 깔고 그 위에 얹는다. 그러면 자외선에 의해 붉어진 피부 열기를 빼주고,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녹차가 들어간 비누는 피부의 왕성한 피지 분비를 막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목욕을 할 때 녹차잎이나 티백을 우려낸 물로 씻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녹차 티백은 빠른 시간에 예민해진 피부를 맑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다.

'녹차소금' 역시 주부들에게 인기다. 소금에 녹차 가루를 넣어주면 비린 요리를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조미료가 완성된다. 녹차소금을 만들 때는 '굵은 소금'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먼저 굵은 소금은 수분기가 없도록 후라이팬에 볶아준 뒤, 녹차 가루 1대 소금 10의 비율로 섞어서 찧어주면 된다.

녹차소금은 생선이나 육류를 조리를 할 때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효과가 있다. 특히 고기에 녹차 소금을 넣어 재워주면 잡냄새도 없어지고, 육질도 더 부드럽다.

이외에도 녹차 티백은 비료로 활용할 수 있다. 녹차 티백을 화분에 뿌려주면 좋은 비료가 된다. 질소가 많이 함유돼 있는 녹차 찌꺼기는 천연 비료로 좋다. 녹차를 우려 먹은 후 찌꺼기를 그냥 화분에 올려놓으면 된다. /김민지기자 minji@





KT "웹툰작가의 꿈, '올레마켓웹툰'과 함께하세요" KT는 올레마켓웹툰 단행본 출시를 기념해 '교보문고와 KT가 웹툰작가의 꿈을 지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도서전, 작가 사인회, 공모전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9일까지 '올레마켓웹툰 단행본 도서전'이 교보문고 광화문점, 영등포점, 강남점,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KT제공

"작아도 커도 기업하기 어려워요"

막걸리 판매 4개 부처에 신고해야… 시대에 맞지않은 규제 여전

"막걸리 팔려면 4개 부처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4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에서 식품 관련 기업 대표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들었다.

일반식품 제조업자가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제출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를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식품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영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이 나왔다.

막걸리 제조업을 하는 한 주조사 대표는 주류사무를 관리해주는 부처가 많게는 4개까지 있어 신고절차 등이 중복되거나 번잡스러운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이처럼 중소·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에 노출되고 있다.

대기업은 사정이 나을 것 같지만 그들 나름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내년 시행되는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다.

섀도우보팅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정족수 미달로 주총 결의성립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 제도를 이용한 상장회사 302개사(유가증권110개사, 코스닥 192개사)를 대상으로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2.4%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제도폐지로 많은 기업들이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은 섀도우보팅 폐지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67.6%)을 들었다.

이어 '주총 결의성립 무산'(14.2%), '기업의 주총참여 권유업무 과중 우려'(11.9%), '총회꾼 등 참석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주주 등장'(5.6%) 순으로 응답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1년 뒤에도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가을 단기 알바 어떤게 있나

할로윈 파티 진행, 빼빼로 판매, 수능 초콜릿 판촉, 단풍놀이 인솔, …. 가을 단기 아르바이트(알바)의 계절이 다가왔다.

가을을 맞아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몰리면서 단기 알바 구인구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달 31일 할로윈 데이, 다음달 11일 빼빼로 데이과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관련 알바 공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6일 알바 업계에 따르면 할로윈 데이를 맞아 페이스 페인팅, 파티 선물 포장, 사탕 시식 행사 단기 알바가 늘어나고 있다. 할로윈 알바는 파티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 등지나 영어 유치원의 수요가 많다. 일반 카페나 파티용품점에서는 할로윈 이벤트를 위한 기념품 선물 포장과 판촉 행사 알바를 모집하기도 한다. 알바 수당은 대개 시급으로 산정된다.

빼빼로와 수능 초콜릿 판매도 가을 알바 특수 종목이다. 빼빼로 데이와 수능 시험 날짜가 이틀밖에 차이 나지 않아 과자류 알바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다. 빼빼로와 수능 초콜릿 판촉 알바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하루종일 상주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알바 급여는 주로 하루 단위로 계산되며 일급 5만~7만원인 경우가 많다. 유통관련 유경험자나 인근 거주자를 구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곳도 있다. 판매 판촉 외에도 초콜릿 제조·생산, 배달, 주문 접수 등의 알바 채용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단풍놀이 인솔보조 알바도 눈에 띈다. 단풍놀이 알바는 여행사 소속으로 모집되어 일정 안내, 인원 점검 등의 인솔 보조 업무를 맡는다. 가을 소풍 행사지로 떠오른 식물원이나 수목원 등에서는 방문객 안내와 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알바생을 모집하기도 한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꼼꼼한 성격의 구직자에게 적합하다.

알바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 관계자는 "단기 알바는 아웃소싱 업체나 이벤트 회사 등을 통한 채용 대행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수당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최저임금과 휴식 시간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방문객 성황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은 26일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 주말까지 4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 오픈 첫날인 지난 24일 약 1만1000여명 방문한 것에 이어, 주말까지 총 4만2000여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포스코건설 제공

에너지 공기업, 6조 해외자산 매각 추진

에너지 공기업들이 2017년까지 6조원이 넘는 해외자산을 처분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광명시갑)은 26일 주요 6개 에너지 공기업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조2723억원의 해외자산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각 규모는 한국석유공사가 2조70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전력(1조4294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4000억원), 한국가스공사(5880억원), 한국수력원자력(1435억원), 대한석탄공사(111억원) 순이다.

이중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구체적인 매각 자산을 밝히지 않았다. 한전은 유연탄과 우라늄 해외사업 지분을 매각하고, 한수원은 해외 우라늄 개발사업을 처분할 계획이다.

백 의원은 "해외사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정유 부문 사업체(NARL)를 애초 매입가격인 1조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00억원에 헐값 매각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imdt@

대한항공, 파리 오르세 박물관 한국어 후원

세계적인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프랑스 오르세박물관에서 내년부터 한국어 안내방송을 한다.

대한항공은 24일 오후 5시(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박물관 살롱 프레지던트에서 김용철 대한항공 구주지역본부장, 기 코즈발 오르세 박물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안내 서비스 후원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대한항공이 오르세 박물관의 작품해설용 오디오 가이드 기기에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추가하는 사업을 후원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어 작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항공은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이어 오르세 박물관의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후원함으로써 우리말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민적 자긍심을 크게 높이게 됐다.



김용철 대한항공 구주지역본부장(오른쪽)과 기 코즈발(Guy Cogeval) 오르세 박물관장이 안내 서비스 후원을 위한 서명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후원으로 오르세 박물관은 박물관 주요 작품 300여점에 대한 한국어 음성 안내 서비스와 한국어 안내지도 및 한국어 가이드북도 제작하게 된다.

현재 오르세 박물관은 오디오 가이드 기기를 통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9개 언어로 작품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오르세 박물관을 찾는 한국인 관람객들은 우리말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대한항공의 후원으로 내년부터 한국어 안내 서비스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르세 박물관이 소장한 세계적인 작품을 한국어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오르세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역(驛)을 개축해 1986년 12월 개관했으며, 밀레의 '이삭줍기', '만종', 고흐의 '화가의 방' 등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인상파, 사실주의, 자연주의 회화 작품 및 조각품, 장식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세계적인 명소다.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박물관에 대한 한국어 안내 서비스 후원 이외에도 국내외에 지속적인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명품 항공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관광세 도입은 산업에 악영향 줄 것"

전경련, 5개 서비스업 활성화 의견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주 주요 서비스업인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 문화를 대표해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가한'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 분과회의'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병원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병원수출은 병원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진출할 때 효과적인데 우수한 국내의료 인력이 중국, 중동 등 개도국 해외 의료 활동 기피로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총장은 이어 "병원수출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뿐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의사면허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의학계와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개정안 도입취지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마련이라고는 하나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광세 도입은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은 세월호 사건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국내관광 부진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권영기 사무국장은 외국환 거래규정으로 국내 카지노업체의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는 만큼 크레딧(Credit) 방식의 외국환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VIP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반출 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크레딧이라는 외국환 거래방식은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카지노 업계의 크레딧 방식 외국환 거래제도는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레딧 방식의 외국환 거래제도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카지노 업체의 해외 주재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유치하고 한국에 입국 후 해당 금액만큼의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본국에서 정산, 차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실장은 선진국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PC, 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의 경우 안전과 오작동에 대한 인증이 필수요소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장영태 사무국장은 "출판산업의 경우 디지털 독서환경 확산 등 매체환경·독서선호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는 실정이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등 국민 독서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GS건설 '그랑서울 몰' 단체 미팅 이벤트 25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몰에서 열린 로맨틱 그랑서울 단체 미팅 이벤트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GS건설 제공

서울 9억 넘는 아파트 강남3구 80%

서울에서 매매가 9억원을 넘는 가구수 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80%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4주차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21만5250가구 중 매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수는 13만4210가구다. 이 중 강남구 4만7606가구, 서초구 3만4576가구, 송파구 2만7075가구 등 강남3구에 81%인 10만9257가구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매매가 9억원 초과 가구수 중 강남3구가 차지한 비율은 72%로 2009년 73%에 비해 1%포인트 줄어든 이후 2011년 75%, 2012년 76%, 2013년 7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강남3구 내 매매가 9억 원 초과 가구수 자체가 증가한 것 보다 강남3구 외 지역에서 매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수 감소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9년 대비 2014년 매매가 9억원 초과 가구수 감소 비율을 보면 강남3구는 13만660가구에서 10만9257가구로 16%가 감소했고 강남3구 외 지역에서는 4만8758가구에서 2만4953가구로 49%가 줄었다.

강남3구는 강남구 개포지구, 압구정지구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동·잠원동 일대 한강변 재건축,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가락시영 등 대단위 재건축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의 강남3구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탁기자 kimdt@

행복주택 사업지 6곳 추가… 3만여가구 확정

국토교통부는 26일 하반기에 행복주택 3000여가구를 건설할 사업 대상지 6곳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상반기까지 2만7000여가구를 건설할 사업 입지를 확정한 데 이어 3000여곳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입지가 확정된 행복주택은 47곳 3만500가구로 늘어났다.

하반기 추가로 확정된 사업지는 ▲고양 지축 약 890가구 ▲하남 감일 약 670가구 ▲천안 백석 약 550가구 ▲용인 구성 약 500가구 ▲수원 호매실 약 400가구 ▲대전 도안 약 180가구 등 모두 3190가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지어 젊은층에게 일터와 가까운 집을 제공하는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입지가 확정된 3만 여가구에 대해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한 2만6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단계별로 나눠 보면▲인천 주안역, 광주역 등 설계 단계에 있는 행복주택이 18곳 9400가구▲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김포 한강 등 사업승인을 신청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행복주택이 19곳 1만5600가구▲서울 오류, 고양 삼송, 대구 혁신 등 사업승인이 완료된 행복주택이 10곳 5500가구 등이다.

설계 중인 행복주택 9400가구 중 5000가구는 연내 사업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2015년 초 승인할 계획이다.

일부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 가좌, 서울 내곡 등 5곳 1500가구는 이미 착공했고 서울 오류, 고양 삼송, 대구 혁신 등 6곳 4500가구도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연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착공한 곳 중 송파 삼전(50가구)과 서초 내곡(87가구)은 내년 하반기 준공돼 행복주택 중 처음으로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올해 사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등 2017년까지 계획대로 14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 85% 계약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의 분양열기가 뜨겁다.

선착순분양에 들어간지 불과 수일만에 약 85%의 계약률을 달성하면서 저금리시대 틈새투자 상품으로서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의 이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평택 안정리 팽성읍 일대에 들어서는 평택 브라운스톤 험프리스는 주한미군 렌탈에 특화된 아파트로서 입지부터 설계까지 미군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상품으로 그 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획기적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뜨거웠던 관심만큼 지난달 19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오픈 후 주말 3일간 수천여명이 다녀갔다. 선착순분양이 시작된 10월 9일부터 투자수요들이 몰리기 시작하여 현재 약 85%의 계약률이 말해주듯 투자상품으로는 이례적으로 단기간



내 분양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는 그간 미군 대상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던 투자상품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난 944세대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과 전세대 남향형 배치, 미군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9㎡~146.4㎡의 중대형 구성에 3.3㎡당 770만원부터 시작되는 저렴한 분양가가 투자자들의 구미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주변 개발에 따른 높은 프리미엄까지 기대된다.

모델하우스는 강남역 분당선 4번 출구 인근에 개관중이며, 문의 전화는 02-553-9000이다.

/김두탁기자

이름만 빼고 다 바꾼 '지프 올 뉴 체로키'

임의택의 차차차

■ 지프 올 뉴 체로키

7년 만에 3세대로 '환골탈태'




▲한 줄 평가: 뛰어난 안전장비를 더하고 정체성을 잃었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중형 SUV의 열풍이 뜨겁다. SUV의 본고장인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유럽도 마찬가지다. 포르쉐 마칸,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BMW X4 등 근 몇 년 사이에 등장해 주목받은 SUV들은 하나 같이 대형 SUV보다 한 체급 작은 모델이다. 크라이슬러의 지프 디비전은 이 시장에 올 뉴 체로키로 화답했다.

체로키가 처음 시장에 등장한 때는 1974년. 1984년 나온 2세대 모델은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SUV로 기록되며 시장을 리드했다. 체로키의 성공 이후 수많은 메이커들이 SUV를 만들기 시작했다.

2001년까지 잘 나가던 체로키는 2002년부터 북미에서 '리버티'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체로키라는 이름이 살아있었지만, 리버티로 바뀐 이후 2세대 체로키의 위용은 사라지고 혹평만 난무했다. 한국에서도 2007년 3월 이후 더 이상 이 차를 구입할 수 없었다.

그러던 체로키가 7년 만에 3세대로 환골탈태해 고객 앞에 등장했다. 디자인은 혁신적이면서도 낯설다. 주간주행등이 위에, 헤드램프가 아래에 자리하는 특이한 앞모습부터 군살을 뺀 날씬한 몸매까지 기존 체로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주간주행등을 헤드램프처럼 배치하는 스타일은 닛산 쥬크와 시트로엥 그랜드 피카소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는데, 좋고 싫음이 뚜렷이 나뉘는 스타일이다. 참신한 느낌은 있지만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

실내로 들어서면 꼼꼼한 마무리에 놀란다. 현대 투싼ix와 포드 이스케이프를 섞은 듯한 대시보드에 마무리가 좋은 가죽시트와 내장재를 조합해 완성했다.

차체 길이는 BMW X3보다 37mm 짧은 4620mm인데, 휠베이스(앞뒤 차축간 거리)는 90mm나 짧다. 상대적으로 체로키의 실내가 좁아 보이는 이유다.

파워트레인은 미국에서 팔리는 177마력 2.4 가솔린 엔진과 유럽에서 팔리는 170마력 2.0 디젤 터보 엔진이 함께 선보였다. 시승차는 주력 모델인 디젤 AWD 모델이 배정됐다.

독일 ZF의 9단 자동변속기와 짝을 이룬 디젤 엔진은 토크 분출이 빠르고 변속감각도 훌륭하다. 기존 지프 모델의 소음을 대폭 줄이면서 자잘한 진동도 잘 잡아냈다. 다만 급가속 때의 변속 반응은 좀 더 빠르면 좋겠다. ZF 9단 변속기를 이미 쓰는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마찬가지로 스킵 시프트가 좀 더 빠르다면 더 강렬한 가속감을 맛볼 수 있다.

새롭게 장착된 여러 안전장비 중 인상적인 것은 충돌사고를 미리 예측해 차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과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후진 때도 장애물과의 간격이 충분치 않을 경우 차가 알아서 멈춘다. 차선을 이탈하는 것이 감지되면 차를 본래 차선으로 살짝 되돌리는 장비까지 갖췄다.

새 모델의 자랑거리는 또 있다. 주행 중 네 바퀴의 구동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뒤 차축과 엔진의 구동을 끊을 수 있다. 시승 모델의 도심 연비는 12.3km/ℓ, 고속도로 연비는 16.8km/ℓ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4:6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10.0km/ℓ를 기록했다. 표시 연비와의 오차는 크지 않지만, 정속주행을 계속해도 연비가 잘 높아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오프로딩 성능을 빼고 SUV를 평가할 수는 없다. 기어 레버 위쪽에 마련된 원형의 다이얼을 돌리면 체로키는 지형에 맞게 알아서 구동력을 조절한다. 체로키 발표회에 마련된 간이 체험시설에서 이 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추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격적인 산악도로를 달리며 테스트 할 계획이다.

올 뉴 체로키는 모든 면에서 달라졌고 완성도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 차의 정체성은 다소 모호하다. 2세대 체로키가 SUV의 표준을 제시했던 데 비해, 올 뉴 체로키는 다른 차의 장점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느낌이다. 4990만~5640만원의 가격도 수긍하기 힘들다. 크라이슬러 코리아도 그 점이 걸렸는지 출시 후 500대 물량까지 400만~600만원 정도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물량이 다 팔린 후에 원래 가격대로 판매할지는 의문이다. 과거 피아트 친퀘첸토를 출시가격보다 대폭 낮춰 판매한 바 있고, 300C의 프로모션 가격도 기간을 늘리며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할인 판매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ferrari5@metroseoul.co.kr

기아차 '긴급출동 스마트폰 접수 서비스'



기아자동차는 고객에게 신속하고 스마트한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출동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6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긴급출동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080-200-2000)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신청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에는 고객 상담과 접수가 용이하지 못한 불편함이 있었다.

긴급출동서비스 스마트폰 접수 시스템은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일 때, 긴급출동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링크된 문자를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발신해 고객이 기다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차의 긴급출동서비스 스마트폰 접수 시스템은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기아차의 서비스 멤버십 'Q 멤버스' 회원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아차는 고객이 긴급출동 접수 후 출동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3단계(접수처리, 출동, 완료)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고객에게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기아차는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올뉴모닝	–	550	780	820	910
쉐보레	스파크	–	500	690	720	840
현대	투싼ix	1,550	1,610	1,650	1,840	1,960
기아	포르테	850	920	1,020	1,080	1,110
현대	그랜저HG	–	–	2,190	2,370	2,760
미니	쿠퍼2세대	1,770	1,950	2,040	2,390	2,510
BMW	3시리즈	2,390	2,450	2,850	3,270	3,940
	5시리즈	2,330	2,790	3,740	4,400	–
아우디	A4	2,370	2,590	2,840	3,180	3,580
폭스바겐	골프	1,730	2,040	2,170	2,420	2,520
	뉴파사트	1,940	2,390	2,250	3,280	–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당청 갈등, 대통령이 풀어야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벌이는 갈등이 심상치 않다.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으로 불거진 불협화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김 대표가 자신이 실수했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원색적으로 면박을 주며 치고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고 불안하다.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5개월 가까이 여야 간 대치로 파행을 거듭한 국회가 이제 가까스로 문을 열어 가동 중이다. 지금 국민들은 하루빨리 민생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해줄 것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삐걱거리는 바람에 실망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팀이 내세운 사내유보금 과세와 재정확장정책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해 불편한 관계의 씨앗이 되었다. 여기에다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3대 공공부문 개혁도 당·정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탓하며 야당과 협상다운 협상한 번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니며 국회를 공전시켰다. 대다수 국민정서는 '식물국회'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지만 여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설상가상으로 김태호 최고위원이 김 대표와 청와대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돌연 사퇴해 김 대표 체제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 바람에 새누리당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초만 해도 지지율이 높아 차기 대선 여당후보로 1위를 보였다. 그러나 이제 신중하지 못한 정치행보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위상은 박근혜 정부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당·청 간 갈등과 당내 불협화음을 수습하자면 김 대표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자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김 대표는 이른바 '비박'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국민 사이에 대통령과 껄끄러운 사이로 비쳐진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당·청 안팎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늘 소통의 문제로 비판 받고 있는 대통령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당·청관계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상화 시킨다면 그동안 '불통'의 이미지도 씻을 수 있다. 김 대표를 직접 만나 당·청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당·정관계를 원만하게 가동시켜야 그토록 갈망하는 경제살리기도 힘을 받을 수 있다.

포토프리즘 깊어가는 가을



25일 서울 여의도공원 길가에 단풍들이 곱게 물들어 있다. 시민들은 곧 떨어져 낙엽이 될 단풍을 바라보며 추억을 남기기 위해 연신 카메라를 눌러댔다. /손진영기자 son@

통상임금 놓고 싸울 때인가



뉴스룸에서
임 의 택
<경제·산업부장>

지난 15일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르노삼성은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법원판단에 따르겠다"던 지난달 23일 임단협 타결 내용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르노삼성의 태도는 이 회사가 한국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외자기업이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한국GM이나 쌍용차와는 전혀 다른 행보다.

르노삼성과 르노자동차는 노사문제로 시간낭비를 할 게 아니라 한국시장에 특화된 제품 출시와 이를 위한 R&D 투자에 더 신경 써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고 좋은 판매실적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르노삼성의 해법은 전문가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초대 르노삼성 사장을 역임하고 르노 본사로 간 제롬 스톨 부회장은 "부산공장의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며 노조를 압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가동률이 떨어지는 부산공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닛산 로그 북미 수출 물량을 할당받는 방법을 택했다. 이는 수출이 끊어지면 공장 가동률도 곧바로 떨어지는 매우 허약한 구조다. 부산공장이 아니라 일본 또는 미국에서 로그를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수출 물량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나마 좋은 판매를 보이던 QM3는 앞 유리 균열과 변속기 불량 등 여러 가지 품질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부산공장보다 낮은 임금을 자랑하던 르노 스페인 공장에서 품질관리가 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3년 만에 내놓은 SM7 노바는 기존에 장착하던 닛산 엔진과 변속기를 그대로 수입해 만들고 있다. 새로운 연구개발과 투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결국 해법은 르노삼성과 부산공장의 자체 경쟁력 향상에 있다. QM3를 많이 들여와 팔고 로그를 많이 찍어내 수출해도 결국은 '돌려막기'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소비자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이고 한국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그것이 르노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패션 위크에 대한 소회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패션위크가 지난 주 수요일로 막을 내렸다. 패션가을은 강쇠바람을 타고 부산을 출발했다. 대구에서 무르익었고, 순식간에 서울을 물들였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스러졌다.

짧은 계절처럼 쓸쓸하고 아쉽게 종적을 감췄다.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뻔한 약속만을 남겼다.

런웨이(Runway)장에서 가장 가까운 좌석은 바이어를 위한 자리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옷을 바이어에게 보여주고 주문을 받는다. 주문보다 더 귀한 바이어의 조언을 위해서는 자리가 아닌 장소 전체라도 내줄 수 있다.

그 자리는 연예인과 블로거, 중국 재력가의 것이 아니다. 연예인에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뒷줄에 앉아서 받은 바이어는 두 번 다시 행사장을 찾지 않는다.

패션행사장의 VIP는 당연 좋은 값에 옷을 구매하고 유통시키는 바이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을 하는 이유다.

이번 패션위크의 VIP는 블로거였다. 유명 블로거에게 항공·숙박·행사장 안내는 최고 수준으로 제공됐다.

심지어 별도의 수고료도 적지 않게 지불했다. 런웨이에 온 블로거는 자신이 어떤 눈으로 옷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냥 많이 찍고, 감탄사를 붙여 업로드 할 뿐이다.

행사기간에는 세미나·만찬·사교파티 등 각종 모임이 열린다. 그곳에는 나름의 엄격한 입장 기준이 있다.

대부분의 모임이 관계자와 지인들로 채워졌다. 바이어가 재미 삼아 들러도 한 시간 이상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호텔에서 쉬는 게 백 번 낫기 때문이다. 패션행사 관련 모임에서 패션 얘기를 할 상대가 없다는 건 끔찍하다.

어쩌다 세계적인 바이어, 패션관계자가 행사장에 등장했다. 쇼 주최 측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브랜드 관계자가 와서 참석한 연예인을 촬영해야 하니까 자리를 옮겨달라는 요청에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주관 기관에서 그토록 엄청난 돈을 들여 부르고 싶었던 사람이 스스로 왔는데 문전박대 했다.

두 번 이상 한국 패션위크에 온 바이어들은 입을 모은다. 같은 문제거나, 더 나쁜 문제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부끄러웠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에볼라와 국제사회



기자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에볼라 바이러스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피어볼라'(에볼라 공포)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간호사 두 명이 최근 잇따라 완치 판정을 받아 에볼라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에볼라 생존자인 켄트 브랜틀리 박사의 혈청을 투여받은 뒤 완치됐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마법의 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혈액형이 같아야 한다. 이 때문에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과 영국의 대형 제약사는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WHO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아프리카 감염 국가에 내년 상반기 중 수십만 개의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볼라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제약사의 협력 모습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사후약방문식' 대처이기 때문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은 이미 10년 전 동물실험에 성공했다. 하지만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간 제약사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 같은 자본주의적 논리는 결국 에볼라 바이러스를 '지구촌 바이러스'로 키웠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말라리아 퇴치보다 대머리 치료 연구에 더 많은 돈이 몰린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비판이 가슴에 와닿는 지금이다.

WHO에 따르면 23일 현재 에볼라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5000명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에볼라가 '21세기 흑사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에볼라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기를 바란다.

아모레퍼시픽 '아시안 뷰티' 시동 걸다

중국 생산·연구·물류 통합 허브 역할 '원대한 기업' 첫걸음
설화수·이니스프리 등 '5대 챔피언 브랜드 기반' 성장 도모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의 뷰티사업장. 전 구역이 '클린룸'으로 운영되다보니 모자·가운에 덧신까지 착용하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유화 제조장, 내용물 보관실, 스킨 제조장 등은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컨트롤 되며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제품 포장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벽에 달린 작업 현황판(POP시스템)을 본 직원들은 손을 빠르게 놀렸다. 생산 제품·생산량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 현황판은 사무실은 물론 한국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셀 생산 방식'과 중국 시장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대량 생산 방식'을 모두 고려해 효율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곳에 제품 생산동 외에 포장재 물류 창고·연구소·사무공간 등을 구축,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뷰티사업장 준공식을 가진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사진)은 상하이 뷰티사업장 준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뷰티사업장은 아모레퍼시픽이 2020년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원대한 꿈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화장품 기준의 절대 품질이 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생산·연구·물류의 통합 허브인 상하이 뷰티사업장은 대지면적 9만2787㎡, 건축면적 4만1001㎡의 규모로 중국 내 업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환경 친화성을 갖췄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효율성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스템 구축, 물류 거점 확보를 통해 중국 고객에게 '절대 품질'의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사업 성장 가속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연간 1만3000t, 본품 기준 1억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마몽드 제품과 이니스프리·에뛰드 제품 중 중국 현지에 특화된 일부 상품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 뷰티사업장의 물류센터는 평균 3~4일이면 중국 전 지역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통 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원대한 기업'으로 도약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20년 원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출 12조원과 이익율 15%, 글로벌 사업 비중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설화수·마몽드·라네즈·에뛰드·이니스프리를 '5대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로 육성하고 글로벌 사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메스티지 시장의 빠른 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마몽드와 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디지털·로드숍 채널에 부응하기 위해 멀티 채널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과 사람의 현지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매출 중 70% 가량을 중국 시장에서 소화하는 마몽드는 현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전용 제품의 비중을 향후 적극 확대한다. 중국법인 인력 중 89%인 현지인의 비중 역시 늘려가기로 했다.

서 회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사회와 호흡함으로써 중국 뷰티 시장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세계인의 삶을 더욱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며 세계 무대에서 '원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하이(중국)=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따뜻한 음료 판매 부쩍 늘어

10월 중순 이후 최저기온이 10도를 밑도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커피전문점에서도 따뜻한 음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판매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냉음료보다 온음료 메뉴의 판매가 전주보다 30%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차가운 음료군의 판매는 20% 이상 감소했다.

특히 환절기에 접어들며 몸을 덥혀주고 감기 예방에도 좋은 뜨거운 과일티의 판매가 높아져 '유자차'의 매출은 40% 가까이 상승했다.

유자는 비타민 C가 레몬의 3배나 함유되어 있으며, 감기를 예방하고



기침을 삭이는 데에 좋다. 또 피부미용에 좋고 피로를 방지하는 유기산이 풍부하다.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 환절기와 겨울철 식재료로 인기가 높다.

/정영일기자 prms@

강강술래 "고기와 찰떡궁합 와인 1+1"

와인 1병 시키면 1병 추가 증정
구이메뉴 주문 양만큼 무료 포장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육류와 잘 어울리는 와인을 매장에서 주문해 결제하면 와인 한 병을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 전 매장에서는 11월 14일까지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 1병을 주문하면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와인 1병을 무료 증정한다.



같은 기간 100% 한우로 우려낸 환절기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도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고객감사 이벤트로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 구이메뉴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메뉴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인분 수만큼 무료 증정해 준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증정한다.

단 매장 행사의 경우 해피아워와 정식류는 제외되며 신림·시흥점은 주중에만 행사를 진행한다.

단풍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강강양념(520g)·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뉴스&뉴스

스타벅스, 학력 제한 없이 바리스타 모집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700여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할 500명의 바리스타를 모집한다.

학력·성별·나이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으로 실시하며 스타벅스 채용 홈페이지(http://job.shinsegae.com)에 접속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공채 바리스타 채용'에서 지원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채용되는 바리스타들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입사가 확정되면 소정의 입문교육을 받은 후 11월 하순부터 원하는 지역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발령 후에는 주 5일 25시간 근무하게 되며, 최소 6개월의 근무기간경과 후에 슈퍼바이저와 부점장·점장으로 승진할 기회를 준다. 4대 보험 이 외에도 설·추석 보너스와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준다. 근무 시간에 따라 조식과 심야귀가 택시비 등도 함께 제공된다.

/정영일기자

쌀쌀한 날씨에 휴대용 보온용품 '주목'

보온병부터 온열기까지



서울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다양한 보온용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보온병부터 휴대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온열기·따뜻함과 스타일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패션아이템까지 다양하다.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의 '로맨틱 보온병'은 이중 구조로 돼있어 용기 내부와 외부 사이의 진공막이 단열효과를 극대화해 온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제품이다. 오목한 뚜껑은 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용기 바닥에는 고무 패드가 있어 미끄러짐을 방지해준다.

핫팩 등 다양한 형태의 휴대형 온열기도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제품이다.

따듯한 소재를 사용한 패션 상품도 겨울철 유용하다. 벤시몽의 윈터에디션은 은 발바닥까지 양털이 내장돼 있어 푹신하면서도 따뜻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효영
오늘 저녁 7시 45분 tvN 방송 * 매일 {월~목} 방송

겨울 제품 반값에 드립니다



더페이스샵, 내달 2일까지 베스트셀러 할인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베스트셀러 할인 행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더페이스샵 전국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행사에서는 건조함이 심해지는 겨울철 필수품인 보디제품과 핸드크림, 자연스러운 광채 피부를 표현하는 '페이스 잇 파워퍼펙션 BB크림' 등을 반값에 판매한다. 또 2500만장 이상 팔리는 마스크시트 중 베스트셀러인 '갈아만든 마스크시트'와 '스파클링 마스크시트'도 50% 할인한다.

신제품 '망고씨드 뽀얀 윤기 데이트 버터'(사진)는 30% 저렴하게 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정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지난 9월 첫 출시된 이 제품은 미백·주름개선의 이중기능성 페이셜 버터로, 번들거림 없이 뽀얗고 윤기 나는 일명 '데이트 피부'를 만들어 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핵심 성분이 100% 식물성 망고씨앗인 버터는 비타민·필수아미노산·식물성 스쿠알렌 등이 풍부해 피부에 수분감을 전달한다. 각종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한 체리씨앗 추출물은 피부 속부터 건강해 보이는 윤기를 부여한다고 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체온에서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착 스며드는 수분 버터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사용하기 좋다.

또한 이 제품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지역 난민의 자립을 돕는 '희망고 캠페인'과 연계, 남수단에서 재배한 망고나무 추출물을 함유하고 공정무역 성분을 사용해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가능한 '착한 소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박지원기자

밤에도 '반짝'… 안전 야외활동 도움

나포츠족 겨냥 '빛 반사' 기능성 슈즈·티 등 눈길





해가 진 밤에 운동을 즐기는 '나포츠족'(나이트와 스포츠의 합성어)이 늘어나면서 아웃도어·스포츠용품 업계가 관련 용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어두운 밤에 보다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빛 반사 기능성 제품이 주를 이룬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재귀반사 필름을 이용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트레킹화 '베르글라 미드'를 출시했다. 지형지물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야간에도 안전한 산행을 가능하게 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엠리밋의 'W패치 반집업 티셔츠'는 어두운 시야에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아이더의 '델피늄'은 신발 양 측면에 촘촘하게 구멍을 낸 타공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고 안쪽에는 빛 반사 소재를 덧댄 등산화다. K2도 야간 산행을 위해 반사 소재를 적용한 등산화 '루멘'을 내놨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검은색의 갑피가 빛에 닿으면 반사돼 빛을 발하는 러닝화 '리플렉티브팩'을, 프로스펙스는 3M 재귀반사 필름으로 야간에 안전한 보행을 돕는 다목적 트레일화 '크로스 TR'을 출시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비타민C 먹고~ 고득점 올리고~ 친환경 비타민 브랜드 '솔가(Solgar)'는 26일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솔가비타민 매장에서 2015년 대입 수능생 응원 이벤트를 벌였다. 이와 별도로 한국솔가 측은 11월 12일까지 솔가홈페이지에 수험생 응원 댓글을 남긴 고객 100명을 추첨, 신체 내 지속시간이 길어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 제품인 '솔가 에스터-C'를 증정한다. /한국 솔가 제공

모직·패딩의류 관리 어떻게?

통풍 잘되는 그늘에 둬 습기 없애도록

경기 불황으로 직접 의류를 관리해 세탁비용을 아끼려는 알뜰족이 늘고 있다.

최근 한 달간(9월 23~10월 22일) 옥션은 울전용·기능성세제와 홈드라이·다림풀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75%·20% 씩 증가했다.

이 같은 수요에 의류 관리 제품 종류도 다양해졌다.

'레이펄스 홈드라이'는 세탁소를 찾지 않아도 가정에서 드라이크리닝이 가능한 제품이다.

한편 겨울철 의류 소재가 대부분 울·모직·니트 등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관법이 중요하다.

모직의류는 잦은 세탁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 착용 후에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습기를 없애고 전용 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 보관하면 된다.

울 소재는 섬유 조직의 특성상 냄새가 배기 쉬운데, 한 시간 정도 바닥이나 타월 위에 눕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면 냄새가 제거된다. 또 패딩은 드라이크리닝을 할 경우 충전재인 오리·거위털의 유분이 빠져나가 부피가 줄어들고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어 가급적 손빨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션 생활주방팀 김은신 팀장은 "겨울 의류는 고급 소재가 많은 만큼 관리에 신경써야 하는데 착용 후에는 간단한 손질을 거쳐 보관하고 전용 세제를 이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세탁한다면 오랫동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각질 잡아야 매끈한 피부 유지하죠"

자극 강하면 건조해져… 주 1~2회 관리 필요



본격적인 가을철 여성들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 각질이다. 보습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메이크업에 공을 들여도 하얗게 드러나는 각질은 깨끗하지 못한 인상만 줄 뿐이다.

피부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습과 함께 적당한 주기를 두고 노화된 각질을 제거해 주는 것이 깨끗한 피부의 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너무 강한 자극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오히려 건조함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주 1~2회 저자극 각질 케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

환절기 예민해진 피부에는 부드럽게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는 파우더타입이 안성맞춤이다. CNP차앤박화장품의 'CNP 딥 엔자임 파우더 워시'는 자연 유래 효소 성분으로 피부에 클렌징과 스크럽 효과를 함께 전달하는 가루 타입의 클렌징 제품이다.

케이트 서머빌의 '클리닉 투 고 필 패드'는 집에서 케어가 가능한 홈 필링 제품이다. 각각의 패드에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이용하면 된다.

부위별 케어를 위한 아이템도 있다. 토털 풋 케어 브랜드 나인풋의 '풋 스크럽 워시'는 발 각질 제거와 냄새 완화는 물론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박지원기자

수험생 생체 리듬 챙기세요

집중력·수면에 도움되는 건강 식품 도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수험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생체리듬' 조절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수험과 학부모들의 생체리듬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알아본다.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은 수험생들은 변비 등 소화계 질환에 취약하다. 따라서 수능 직전의 식사나 간식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현미·통밀·보리·메밀 등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충분히 섭취하면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장(腸)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배변을 도와 변비·대장암 예방에도 좋다.

또 식이섬유는 공복감을 줄여주고 일찍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긴장감으로 잦은 소화불량과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탄산수가 도움이 된다.

잠이 밀려오는 오후시간에는 집중도를 높여주고 뇌활동을 돕는 다양한 식품들로 구성된 간식을 섭취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다.

오메가3·식이섬유·비타민E 등이 풍부해 두뇌회전을 돕는다고 익히 알려진 견과류는 간식으로 섭취하기 좋은 형태까지 갖춰 수험생의 필수 간식으로 꼽힌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 뇌세포를 재건하고 인지력 감퇴를 늦춰주며 기억력을 강화시켜 주는 연어도 좋은 식재료다.



시험 시간에 맞춘 수면 조절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는 수험생 본인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새콤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키위는 불면증에도 좋은 과일이다. 키위에는 마그네슘·칼슘이 매우 풍부한데 이들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계란의 경우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어수험생들이 반드시챙겨 먹어야 할 음식으로 손꼽힌다. 계란에는 100g당 125㎎의 트립토판이 들어있어 숙면을 유도하는 물질의 분비를 돕는다.

이들 식재료 이 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는 비타민C 등이 있다. 감기와 괴혈병 예방은 물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는 체내 합성이 되지 않아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장시간 공부로 인한 누적된 피로를 개선하고 잘 외워지지 않아 기억력 향상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 어려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경우, 간단한 지압법을 알아두면 쌓인 피로와 근육 뭉침 등을 완화할 수 있다.

먼저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과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주먹을 쥘 때 새끼와 약지 손가락 끝이 닿는 사이에 위치하는 소부혈을 지압해주는 것이 좋다. 5초정도 지그시 눌러주며, 양손을 번갈아서 5회 정도 반복해주면 효과적이다.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뻣뻣할 때에는 코끝과 양쪽 귀의 연결선이 만나는 머리 정중앙의 백회혈을 자극해 주는 것이 좋다. 양손으로 백회혈을 3초간, 5회 정도 지그시 눌러주며,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 아침에 눈이 피로하고 얼굴이 붓거나 어지러울 때에는 눈썹이 시작하는 부위의 찬죽혈을 검지로 지긋이 2~3초간 반복해서 누르거나 문질러주면 금새 머리가 맑아지고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미즈메디병원, 취약계층에 무료 독감백신 접종 미즈메디병원이 최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기쁜우리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식 미즈메디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백신접종 이 외에도 철저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평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미즈메디병원 제공

이대목동병원, 재난 대비 모의훈련

양천소방서와 연계…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지난 23일 2014년도 재난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연계해 열린 이번 훈련은 목운중학교 체육대회 중 싱크홀에 의한 가스 폭발로 대량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초기 대응과 환자이송 후 대응 능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유권 이대목동병원장은 "세월호 참사나 판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크고 작은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풍성한 경품… 특급호텔 다양한 이벤트!

SNS를 통해 고객들과의 친밀감을 높이기에 나선 호텔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호텔 숙박권과 식사권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한다.

먼저 The-K호텔서울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우첼로 오픈을 기념해 '우첼로 삼행시' 이벤트를 준비했다. 다음 달 12일까지 호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른 후 삼행시를 댓글로 작성하면 호텔 객실 이용권과 우첼로 파스타 식사권, 테이크아웃 커피 등이 주어진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은 31일까지 진행하는 100주년 기념 이벤트와 함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10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벤트 페이지 내용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레스토랑 이용권이 증정된다.



제주신라호텔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만 예약 가능한 '모바일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하고 페이스북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페이스북에서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면 호텔 숙박권과 더 파크뷰 디너 2인 식사권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 라마다 서울 호텔은 라마다 서울 하늘정원의 BBQ를 체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전개한다. BBQ 체험 후기를 블로그에 작성한 후 후기 포스팅 주소 혹은 사진 등을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참여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코레일, '군자학교' 운영

코레일관광개발이 '칙칙폭폭 군자학교' 기차여행을 정기 상품으로 운영한다. 군자학교는 지난 8월 코레일관광개발과 인문경영원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작된 여행 상품으로 화천의 주요 관광지 투어와 군자학교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화천향교에서 다양한 교육과 전통 다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둘째 날에는 화천의 대표적인 힐링 코스인 산소길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옛 선조의 교훈과 여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칙칙폭폭 군자학교의 정기적인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제 연애 스타일? '집착' 이죠"

'연애의 발견' 다정남 남하진 역

성준

배우 성준은 만24세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한 외모 때문에 '노안 배우'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성준은 야무진 이목구비에 20대 초반 나이가 묻어나는 청년이었다. 재미있게 답변 하지 못하면 '노잼('NO 재미'의 준말)'이라는 신조어를 연발하며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시청률이 전부가 아닌 드라마. 지난 7일 종영된 KBS2 '연애의 발견'에 대한 평가다. 방송 직후 SNS와 온라인 반응은 드라마가 그려내는 생활 연애담으로 뜨거웠다. 성준은 "촬영 초반에는 시청률을 이야기했었는데 체감 반응이 좋으니까 '시청률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작품에서 착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 친구 남하진을 연기한 그는 "답답했다"고 남하진의 연애를 이야기했다.

"100%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청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고아원 동생 안아림(윤진이)과의 관계와 이를



캐릭터 미숙한 성격…"여심 잃었다"
에릭 애칭은 '릭 형' "정말 귀여워"
"로코 이미지만 기억해 아쉽기도"

애인 한여름(정유미)에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요. 남하진의 미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아림 사건 이후 전 여심을 잃었죠. (웃음) 남하진의 이해 깊고 다정한 성격은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고아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고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 노력이 남하진을 답답하게 느끼도록 한 거 같아요."

마지막 회에 그려진 남하진의 결말은 열려 있었다. 한여름과 이별한 후 해외 봉사 현장에서 안아림과 우연히 만난 것. 이에 성준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여름과의 재결합을 가정한 데 대해서는 "관계가 다시 유지됐을 것"이라며 "남하진 스스로 한여름과의 틈을 만든 부분이 있었고 때마침 강태하(에릭·문정혁)가 그 곳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라고 캐릭터가 처한 상황을 이해했다.

성준의 실제 연애는 '답답'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남자 친구하기 힘든 스타일이에요. 모르거나 알고 싶지 않을 때는 심하게 무신경하고 좋아하면 예민해져서 여자친구에게 집착합니다. 연애를 안 한지 오래됐는데 집착이 심해서 실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유가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네요."

'연애의 발견'은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를 집필한 정현정 작가의 작품이다. 성준은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에서 정 작가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로맨스가 필요해'를 마친 뒤 작가님이 읽어보라면서 '연애의 발견' 대본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강태하와 남하진 둘 다였죠. 릭 형은 담백하고 귀여운 면이 있지만 만일 제가 강태하 역을 맡았다면 훨씬 까칠했을 거 같아요. (에릭을 '릭'이라고 부르나?) 네 '릭 형'이요. 형인데 귀여워요. 처음 릭 형을 봤을 때 신기했어요. 그룹 신화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는데 제 앞에 있으니까 'TV에서 보던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인상을 한번에 깨주더라고요.(웃음)"

성준은 '연애의 발견' 초반 연기가 어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반에 현장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주는 에너지에 공부를 하게 됐죠. 전작에서 대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많아서 이번에는 발음과 발성을 훈련했어요. 남하진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 짓기보다는 입체적으로 그리고 싶었죠.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캐릭터의 심리를 느끼도록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델로 데뷔해 KBS2 드라마 스페셜 '화이트 크리스마스'(2011)로 배우 신고식을 치른 그는 3년 동안 10여 건의 작품에 출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출연한 성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에도 출연하며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는데 정작 대중들은 달달한 제 모습만을 기억하더라고요. 아쉽기도 하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어서 이미지가 제한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그래도 너무 로맨틱 코미디만 들어오면 '윙?'할 것 같아요."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주)노마세야컴퍼니
SINCE 2007
노마세야
매운갈비찜
HOT
가맹 모집
먹을수록 즐거운맛! 노마세야 매운갈비찜!
매출대비 높은 수익률!
간단하고 신속한 조리법!
캡사이신을 넣지 않은 깔끔한 매운맛!
KBS 2TV
VJ 특공대
2012. 09. 28
출발! 모닝와이드 morning wide
2012. 10. 08
걷지말고 뛰어라! 런닝맨 RUNNING MAN
2013. 10. 20
굿모닝 충북·세종
2013. 12. 17
특별한 혜택 가맹비지원/인테리어지원
-노마세야매운갈비찜 대표메뉴-
매운갈비찜
대하갈비찜
모듬해물갈비찜
요청하시면 노마세야의 높은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개해드립니다
가맹문의 1661-5019
명예퇴직자/여성창업자/업종변경 우대
www.nomaseyajjim.com

시트콤 아닌 시트콤 같은 '모던파머'

배우 연기 합격… 쏟아지는 이야기는 "숨 찬다"

"우리 드라마는 시트콤이 아니다. 억지스럽지 않다."

SBS 주말 미니시리즈 '모던파머'에서 밴드 엑소(엑설런트 소울즈)의 맏형 유한철 역을 맡은 배우 이시언이 지난 14일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26일까지 4회 방송을 한 '모던파머'는 시트콤은 아니지만 시트콤 같은 작품이다. 배우들의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지저분한 차림새는 시선을 사로잡지만 시종일관 소리 높여 오고 가는 대화와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쏟아지는 이야기가 웃기기 위한 의도된 코미디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작품에서 최연소 농촌 이장 강윤희 역을 맡은 배우 이하늬는 그동안 보여줬던 도시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벗고 변신에 도전했다. 온라인에서는 '후덕한 이하늬' '힌자 보이는 이하늬' 등 여배우에게 치명적인 영상 캡처 사진이 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변신이라는 호평과 함께 극의 몰입도를 높이는 연출이라는 분석이다.

가수 겸 배우 이홍기는 밴드 보컬이자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배추 농사를 하기 시작한 이민기 역을 맡았다. '모던파머'는 이홍기의 땀구멍을 볼 수 있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얼굴을 확대해 보여주는 장면이 많은데 이는 만화적 연출에 적합하다. 철없고 방정맞은 연기는 올해 초 TV조선 드라마 '백년의 신부'에서 했던 진중한 재벌남과 전혀 다르다.

작품은 섬세한 구성으로 재미를 주고 있다. 인터넷 만화 '이말년 시리즈'의 한 컷이 등장했다. 이민기가 마을 지명에 얽힌 유래를 설명하던 중 임금, 군사 그리고 오랑캐와 사슴을 담아낸 웹툰이 등장했고 임금과 사슴이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세우는 '엄지 척'으로 마무리됐다. 사람 크기 만한 100원짜리 동전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개가 숨이 찬다"는 의견이 있다. 시청자 호흡과 발 맞추지 못하는 건 흥행을 좌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배우들의 대사와 표정, 행동의 세기가 조절될 필요가 있으며 쉬지 않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사건을 만드는 연출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모던파머'는 케이블 시트콤 시대를 연 tvN '롤러코스터' '푸른 거탑'을 집필한 김기호 작가의 코미디 정극이다. 진실된 웃음을 내게 만드는 게 남은 16회의 관전 포인트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BS 주말미니시리즈 '모던파머'

갓세븐 일본 데뷔 순항 중

오리콘 데일리 차트 3위·내달 현지 전국 투어

그룹 갓세븐(사진)이 일본 데뷔 싱글 '어라운드 더 월드(AROUND THE WOLRD)'로 오리콘 데일리 차트 3위를 차지했다.

지난 24일 오리콘 데일리 차트에 따르면 갓세븐의 일본 데뷔 싱글 '어라운드 더 월드'는 발매 오리콘 데일리 차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 발매와 동시에 일본 최대 음반 체인점인 타워레코드 전 매장 싱글 차트 1위에도 올라 일본 데뷔와 함께 큰 관심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타워 레코드 시부야 점에서는 21일부터 연속 3일 동안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데뷔를 기념해 타워 레코드와 합작한 '갓세븐 오리지널 디자인 미네랄 워터'도 종합 5위권 내에 올랐다.

갓세븐의 일본 데뷔 싱글 '어라운드 더 월드'는 세상을 향해 꿈을 펼치는 갓세븐의 에너지를 담은 앨범이다. 한·미·일 프로듀서들이 공동 작업한 동명의 타이틀곡 '어라운드 더 월드'와 소속사 선배 그룹 2PM의 준케이가 프로듀싱한 곡 '쏘 럭키(SO LUCKY)'가 수록됐다.

한편 갓세븐은 내달 5일과 6일 양일 간 도쿄 마쿠하리 멧세 이벤트홀에서 첫 번째 일본 전국 투어 '갓세븐 퍼스트 재팬 투어 2014 어라운드 더 월드' 파이널 공연을 연다.

/전효진기자



2014 YG 패밀리 콘서트 인 타이완. /YG 엔터테인먼트 제공

YG 패밀리 콘서트 투어 마무리

개성·실력 무대 – 대만 팬 이벤트 '성료'

2014 YG 패밀리 콘서트가 대만 공연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지난 25일 대만 타오위안 카운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YG패밀리 2014 갤럭시 투어 : 파워 인 타이완'은 현지 팬 2만 3000여명으로 가득했다.

그룹 투애니원의 '크러쉬'로 시작된 콘서트는 '파이어' '컴백홈'으로 이어졌다. 에픽하이는 '플라이' '비켜' '러브 러브 러브'를 부르며 공연장을 클럽처럼 만들었다. 신예 그룹 위너는 '고 업' '공허해' '스마일 어게인'을 부르며 열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YG 대표 아티스트 빅뱅이 등장하자 공연장은 그룹의 응원봉 색깔인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하루하루' '배드 보이' '판타스틱 베이비' 등 히트곡을 연달아 불러 관객 호응에 답했다. 특히 대만 팬은 내달 4일인 빅뱅 멤버 탑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는 이벤트로 '해피 탑 데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어 보여 감동을 줬다.

싸이는 '젠틀맨' '강남스타일' 등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곡을 선보였다. 또한 중국어로 멘트를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개성을 살린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드래곤과 씨엘은 씨엘의 솔로곡 '나쁜 기집애'를 재편곡한 '나쁜 머슴애'와 '멘붕'을 함께 소화했다. 위너의 송민호와 산다라박은 탑의 '둠다다', 대성과 강승윤은 투애니원의 '어글리', 태양과 에픽하이는 '눈,코,입'을 부르며 공연에 재미를 더했다.

YG패밀리 대만 콘서트는 총 5개국 (한국·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 10회 공연에 약 40만 관객을 불러모은 패밀리 콘서트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었다. 총 40여 곡을 4시간 동안 소화했다. 앵콜 무대에서는 YG 소속 가수들이 투애니원의 '고 어웨이',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함께 부르며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전효진기자

지현우 전역 후 첫 해외 행



배우 지현우(사진)가 군 제대 후 첫 해외 팬미팅에 성공했다.

지현우는 지난 25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에 있는 디퍼 아리아케 홀에서 1200여 명의 일본 현지 팬을 만났다. 팬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로 팬과 마주했다.

특히 지현우는 팬 미팅 구성과 기획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2년간 자신을 기다려준 팬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지현우의 친형 지현수는 건반 연주로 동생의 팬 미팅을 축하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현수는 그룹 넥스트의 멤버이자 드라마 음악감독으로 활약 중이다. 지현우는 지난 8월 인터뷰에서 "꿈이 있다면 내가 하는 드라마에 형이 음악 감독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현우는 KBS2 월화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종영 후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전효진기자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애증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설경구·박해일의 빛나는 열연 눈길 몰입도 떨어지는 후반부가 아쉬워

■나의 독재자

어릴 적 아버지는 한없이 큰 존재였다. 무슨 일이라도 다 해낼 것 같은 영웅 같았다. 그러나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 아버지의 존재감은 서서히 작아지게 된다. 어릴 때는 알지 못한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스스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이해준 감독은 작고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남다른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주가 있는 이야기꾼이다. '천하장사 마돈나'에서는 씨름과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재치 있게 엮어냈고, '김씨 표류기'에서는 자살을 꿈꾸는 남자와 히키코모리 여자의 색다른 로맨스로 따뜻한 감성을 전했다. 5년 만의 신작 '나의 독재자'는 김일성이 돼버린 아버지와 자본주의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아들의 이야기로 애증으로 뒤얽힌 부자 관계를 다룬다.

영화는 남북정상회담 전에 실제와 같은 리허설을 치렀다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빌려왔다. 전반부는 아들에게 멋진 연기를 보여주고 싶은 무명의 연극배우 성근(설경구)이 김일성의 대역이 돼가는 1972년의 이야기다.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그저 가족만을 생각하던 평범한 가장이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이해준 감독 특유의 유머와 감성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배우를 잡아먹는 배역"에 사로잡히는 성근의 변화는 연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흥미로움을 전하기도 한다.

'나의 독재자'의 전반부는 가족이라는 테마는 물론 정치적·사회적 함의까지 담아냄으로써 풍성한 느낌이 있다. 반면에 1994년의 이야기를 그린 후반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만 오롯이 집중함으로 인해 몰입도가 다소 떨어진다. 자신을 김일성이라 믿는 늙은 성근과 자본주의적인 욕망에 충실한 태식(박해일)의 이야기가 기대만큼의 큰 충돌이나 갈등으로 다가오지 않는 점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그럼에도 '나의 독재자'는 관객 마음에 한 가지 강한 인상만큼은 남긴다. 바로 배우들의 연기다. 두꺼운 분장을 하고서도 깊은 감정을 전하는 설경구, 그리고 그런 설경구를 묵묵히 바라보며 영화를 든든하게 짊어지고 가는 박해일의 연기는 '나의 독재자'의 가장 큰 미덕이다. 김일성의 대역이 있었다는 독특한 설정이 눈에 먼저 들어오겠지만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애증으로 뒤얽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익숙한 이야기가 공감대로 다가올 것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10월30일 개봉.

제니퍼 로렌스 내한 취소

"부득이한 사정… 제작사 공식 발표 예정"

할리우드 스타 제니퍼 로렌스(사진 왼쪽)의 첫 한국 방문이 무산됐다.

지난 23일 영화 '헝거게임: 모킹제이'의 수입사 누리픽쳐스는 "'헝거게임: 모킹제이'의 아시아 투어 일정과 함께 오는 11월4일로 예정됐던 내한 행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니퍼 로렌스는 '헝거게임: 모킹제이'의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과 배우 조쉬 허처슨, 리암 헴스워스와 함께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다음달 4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었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아메리칸 허슬' 등으로 할리우드의 새로운 대세 배우로 떠오른 제니퍼 로렌스의 첫 한국 방문으로 팬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 행사의 취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누리픽쳐스 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제작사 라이온스게이트의 공식 발표 이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헝거게임: 모킹제이'는 판타지 블록버스터 '헝거게임' 시리즈 세 번째 작품으로 혁명의 상징 모킹제이가 된 캣니스(제니퍼 로렌스)가 절대권력 캐피톨에 맞서 정면 승부를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다음달 20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나를 찾아줘' 박스오피스 정상

비수기 극장가에 활기

데이빗 핀처 감독의 스릴러 '나를 찾아줘'(사진)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나를 찾아줘'는 지난 23일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로 첫 등장했다. 25일 토요일에는 17만4449명의 관객을 추가해 누적 관객수 33만7667명을 기록 중이다.

'나를 찾아줘'는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아내의 실종 이후 유력한 용의자로 몰린 남편의 이야기를 그렸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임에도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비수기 극장가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나를 찾아줘'와 같은 날 개봉한 조진웅, 김성균 주연의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5일 토요일에는 14만1245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수 28만을 넘어섰다.

윤계상, 고준희 주연의 '레드카펫'은 개봉 첫 날인 지난 23일 박스오피스 4위로 등장했으나 25일에는 5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장병호기자



'강남 1970' 내년에 만난다

"더 많은 관객 유치위해 개봉 연기"

이민호, 김래원 주연의 영화 '강남 1970'(사진)이 내년 1월로 개봉을 연기했다.

지난 24일 배급사 쇼박스 미디어플렉스는 "'강남 1970'이 2015년 1월로 개봉 일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개봉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상 성수기인 1월에 보다 더 많은 관객을 안정적으로 만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당초 '강남 1970'은 11월 개봉 예정이었다. '인터스텔라' '패션왕' '카트' '헝거게임: 모킹제이' 등 대작들과 흥행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됐다. 개봉 연기로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작보고회도 취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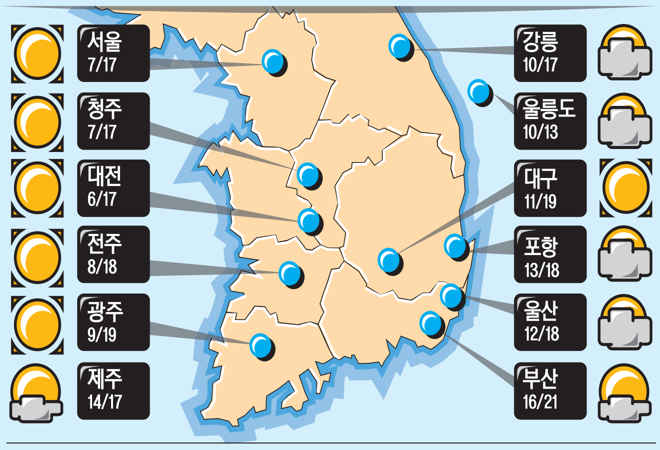


'강남 1970'은 '말죽거리 잔혹사' '비열한 거리'에 이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판으로 이민호, 김래원이 주연을 맡았다. 1970년대 서울,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 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린 작품이다. /장병호기자

날씨

10/27 月 일출시각 06:51 일몰시각 17:4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급격한 기온 변화는 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기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워싱턴 레이니어 산과 콜롬비아 크레스트



조민호의 **와인스토리**

레이니어 산은 누가 뭐래도 미국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해발 4323m 높이로 머리에 만년설과 빙하를 얹고 워싱턴주 전체를 굽어본다. 캐나다에서 캘리포니아 북부까지 이어지는 캐스케이드 산맥의 최고봉이기도 하다.

캐스케이드 산맥은 워싱턴주 떼루아(와인을 생산하는 자연조건을 통칭하는 용어) 생성의 근원이다. 산맥 전체가 화산지대다. 오랜 화산활동으로 포도나무 재배를 위한 다양한 성분의 토양이 구성됐다. 또한 워싱턴주를 남북으로 가르며 서쪽에는 습한 기후, 동쪽에는 사막 기후를 탄생시켰다. 워싱턴주의 와이너리가 건조한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산맥의 중심을 레이니어 산이 받쳐준다.

워싱턴 주에서 가장 큰 와이너리는 콜롬비아 크레스트다. 오레건주와 워싱턴 주의 경계를 이루는 콜롬비아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캐스케이드 산맥 너머에서 북쪽으로 꺾어지며 거대한 콜롬비아 분지를 형성한다. 위도상으로도 프랑스의 보르도와 일치하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이은 두번째 와인 생산지를 이룬다. 콜롬비아 크레스트 와이너리의 근거지다.

콜롬비아 크레스트 와이너리의 이름은 레이니어 산에서 유래했다. 레이니어 산의 최고봉 이름이 바로 콜롬비아 크레스트인 것이다. 이 와이너리는 콜롬비아 강이 내려다 보이는 패터슨에서 워싱턴 주 와인 산업을 발전시킨 일등공신 생 미셸이 1978년 설립했다. 초기에는 소비뇽 블랑 등 화이트 와인이 주였으나 현재는 레드와인을 더 많이 생산한다. 포도나무가 지평선을 이룰 정도로 넓은 포도밭에서 만들어 내는 이 곳 와인은 '가격에 비해 품질면에서는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다. 우리나라 와인 마니아들도 인정하고 동감하는 사실이다.

품질 개선에 대한 댓가는 컸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지난 2009년 이 와이너리의 '2005 카베르네 소비뇽 리저브'를 세계 최고의 와인으로 선정했다. 로버트 파커가 매년 발표하는 100대 와인의 제일 윗줄에 콜롬비아 크레스트의 이름을 올린 것. 콜롬비아 크레스트 와이너리가 워싱턴 주의 대표주자로 등극한 순간이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7			
	1		8	5				
6		7	3					9
8						1	6	
2				4				7
	3	1						2
1					9	2		3
				3	6		9	
			4		1	6		

					9			
6			8		1		7	
5	1	4		7				
		6		8				4
1								5
4				6		1		
				3		5	9	7
	3		4		5			6
			9					

스도쿠 정답

5	2	4	9	6	7	3	1	8
9	1	3	8	5	4	7	2	6
6	8	7	3	1	2	4	5	9
8	7	5	2	9	3	1	6	4
2	6	9	1	4	8	5	3	7
4	3	1	6	7	5	9	8	2
1	5	6	7	8	9	2	4	3
7	4	2	5	3	6	8	9	1
3	9	8	4	2	1	6	7	5

3	7	8	2	4	9	6	5	1
6	9	2	8	5	1	4	7	3
5	1	4	3	7	6	9	2	8
9	5	6	1	8	2	7	3	4
1	8	3	7	9	4	2	6	5
4	2	7	5	6	3	1	8	9
2	4	1	6	3	8	5	9	7
7	3	9	4	2	5	8	1	6
8	6	5	9	1	7	3	4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준사관으로 직업에 회의 느끼는데 군 생활이 천직… 2017년쯤 승진가능

Q 알곡이 남자 66년 6월 6일 오전 10시

안녕하세요. 사주 속으로에 저도 용기를 내서 여쭙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49세 입니다. 양력으로 6월 6일 이고 태어난 시간은 10시쯤 됩니다. 지금은 전방에서 군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교도 아닌 만년 상사 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사건 사고로 선진국이 못되는 이미지로 국민들의 염려가 큰 시점에 특히 군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사건으로 제자신이 군인직업에 대하여 회의를 느낍니다. 제대하여 다른 일을 할까도 생각 하지만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A 애독자분들의 신뢰가 이어지므로 감사하며 오늘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 작게나마 두려움도 있을 것이나 2016년 지나면서 직업에 회의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바른 생활에 바른 마음의 소유자인데 지금의 마음은 자칫 세상의 흐름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좁은 소견에 사로잡히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느 계통이던 잘 나가는 인사라 해보아도 한시적인 운으로 허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시기는 있기 마련인데 계획이 무계획이 되고 남의 계획에 부화뇌동하기도 하여 오히려 한곳에 줄 곳 집중하거나 안주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성정을 알고 사회생활에 대처 해 나가야 속편합니다. 관귀학관(官貴學館)으로 지혜가 밝고 뛰어나 교육자나 공무원이 되면 딱 인데 공명심이 강하여 현재 군 생활이 천직이 됩니다. 운이 쇠지(衰地:쇠하는 흉함)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지만 2017년부터는 왕성한 기운에 승진이나 녹봉이 오르는 좋은 운으로 보장이 되니 마음을 잡도록 하세요.

지금 직장을 그만둔다면 사업 운이 없으므로 2018년부터는 백수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군대생활을 하도록 권하는 것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귀하의 사주를 다시 보자면 태어난 생월에 오화(午火)가 양인(羊刃:양의 뿔과 같이 강함)으로 양인 격은 편관(偏官: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이나 정관(正官: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을 만나야 귀격(貴格)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나쁜 기운을 합살(合殺)시켜 버려서 음력 10월 지나면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7일 (음 (윤) 9월 4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근심은 눈이 녹듯 사라진다. **60년생** 리더십으로 상대 품어라. **72년생** 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기쁘다. **84년생** 동력이 잃은 계획은 포기할 것.

49년생 알려진 정보만 믿지 말라. **61년생** 어렵게 제안한 일은 힘을 받는다. **73년생** 맷집이 강해도 매 맞을 일 자초 말라. **85년생** 모임에 가면 주인공이 된다.

50년생 옛날 실력 발휘할 기회 온다. **62년생** 주변의 의견에 귀 기울여라. **74년생** 새로 시작한 일은 자리 잡힌다. **86년생** 스펙 아닌 스토리로 존재감 보여주라.

51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늦어질 듯. **63년생** 큰 지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인다. **75년생** 남을 먼저 걱정한 다음 즐거워라. **87년생** 상사에 원하던 대답 듣는다.

52년생 강렬한 이미지 남길 필요가 있다. **64년생** 자신의 잘 함을 자랑하지 말라. **76년생** 남의 잘 못을 들추다간 되레 당한다. **88년생** 사랑의 온도는 갈수록 핫~.

53년생 몸과 마음 따로 놀아 씁쓸~. **65년생** 운전대 잡으면 후회할 일 생긴다. **77년생** 함께 살 방법 모색하니 박수가 짝짝~. **89년생** 설득한 친구는 마음 돌린다.

42년생 화사하게 웃는 배우자가 좋다. **54년생** 내가 좀 더 일해야 한다는 생각할 것. **66년생** 진상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78년생** 상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43년생 가벼운 병도 가볍게 보지 말라. **55년생** 애지중지할 물건이 생긴다. **67년생** 낙관했던 일이 안 풀려 휴~. **79년생** 마음의 상처는 오래 두면 병이 된다.

44년생 생각도 못한 선물 받는다. **56년생** 시간이 걸려도 순리대로 할 것. **68년생**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 **80년생** 좋은 일의 신호탄이 있으니 잘 파악할 것.

45년생 좋은 일엔 돈 걱정 말라. **57년생** 배우자의 변덕에 끓는다. **69년생** 형식을 허물고 새 길을 개척해 보라. **81년생** 끼우뚱 하면서 굴러가는 게 인생이다.

46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당도한다. **58년생** 비현실적 계획은 빨리 접어라. **70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82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이 나타나 가슴이 쿵~.

47년생 특별한 만찬을 기대하라. **59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71년생** 자영업자는 기회가 왔을 새판을 짜보라. **83년생** 자존심 싸움 벌이면 잃는 게 많다.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NC를 상대로 11-3으로 승리한 LG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진출권 획득으로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LG, 플레이오프도 '기세등등'

포스트시즌 쉼 없는 강행군…"힘도 자신감도 넘쳐"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쉴 틈 없이 달리며 기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LG는 25일 NC와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승리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27일에는 서울 목동구장에서 리그 2위 팀인 넥센 히어로즈와 플레이오프 1차전에 돌입한다.

LG는 포스트시즌 진출팀 중 가장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규시즌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에야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했다. 시즌 막판까지 SK 와이번스와 4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틀 뒤인 19일부터는 3위 팀 NC 다이노스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렀다.

LG는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NC에 13-4로 대승을 거뒀다. 2차전에서는 후반 추격하던 NC에서 실책이 나와 4-2로 행운의 승리를 낚았다. 3차전은 NC에 3-4로 패했으나 4차전에서 11-3으로 이기며 5전3승제인 준플레이오프 승자가 됐다.

4차전 만에 승자가 됐지만 LG는 여유 없이 곧 바로 플레이오프에 뛰어들게 됐다. 지난 20~21일 이틀 연속으로 내린 비로 2차전 경기가 우천 순연되면서 준플레이오프 4차전 일정도 밀렸기 때문이다. 우천 취소가 없었다면 LG는 3일을 쉴 수 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단 하루만 휴식하고 플레이오프에 나서야 한다.

양상문 LG 감독은 준플레이오프 진행 중 "4차전에서 끝나도 이긴 팀이 플레이오프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밑에서 올라가는 팀에 희망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LG의 강행군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한껏 달아오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양 감독은 4차전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꼴찌로 올라가면 일정은 감수해야 한다"며 "하루 정도 더 여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대로 분위기가 크게 구애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선수들도 시즌 후반부터 어려운 경기를 이어온 덕에 '가을 야구'를 오히려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기게 됐고 경기 결과가 좋아 자신감도 상승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힘도 생기고 자신감도 분명히 얻었다"고 전했다.

LG의 플레이오프 상대인 넥센은 지난 17일 SK 전까지 4연승을 달린 뒤 열흘 동안 전력을 가다듬었다. LG가 넥센을 상대로 거침없이 기세를 몰아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김성근-선동열, 엇갈린 희비

김성근, 한화 새 사령탑 선임 선동열, 재계약 6일 만에 사퇴

대한민국 프로야구 대표 감독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9월 해체된 고양 원더스를 이끌었던 김성근 감독은 25일 한화 이글스의 새 사령탑으로 프로야구 복귀를 확정했다. 한화는 이날 김성근 감독을 계약금 5억원과 연봉 5억원 등 3년간 총액 20억원에 제10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김 감독은 SK 사령탑에서 물러난 2011년 8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프로야구 사령탑으로 복귀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한화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성원해 주신 팬들에게도 고맙다"며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한화를 명문구단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반면 재계약을 통해 KIA 타이거즈를 2년 더 이끌 예정이었던 선동열(51) 감독은 재계약 6일 만에 사퇴했다.

선 감독은 이날 오후 "감독 재신임을 받은 뒤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지난 3년간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임의 변을 밝혔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 19일 KIA와 2년간 총액 10억60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8위에 그치는 등 재임 기간 중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비난 여론을 받았다. 이에 선 감독은 팬들의 '재계약 철회 릴레이'가 펼쳐지던 구단 홈페이지에 새로운 각오를 담은 편지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돌아서지 않자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KIA는 선 감독의 사의를 수용하고 이른 시일 내 후임 감독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김성근 감독



선동열 감독

김효주 KLPGA 메이저 3승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 올 상금 11억4천만원

김효주(19·롯데·사진)가 한국프로여자골프(KLPGA) 투어 2014 시즌 4개 메이저 대회 중 3개 대회를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김효주는 26일 경기도 광주 남촌시 컨트리클럽 동서코스(파72·6715야드)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엮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2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를 1타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4천만원이다.

김효주는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한국여자오픈과 지난 12일 끝난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이번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으로 올해 메이저에서만 3승을 거뒀다. KLPGA 투어에서 한 해에 메이저 3승을 거둔 것은 2008년 신지애에 이어 김효주가 6년 만이다.

또한 김효주는 9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도 제패해 올해에만 한국과 미국 투어에서 메이저 4승을 수확했다. 시즌 상금으로 11억4000만원을 챙긴 김효주는 남은 3개 대회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시즌 상금왕 1위 자리를 확정지었다. /장병호기자

호날두 웃고 메시 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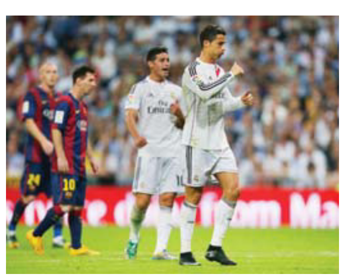
'엘 클라시코' 마드리드 3-1 승리

올 시즌 첫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웃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26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9라운드 홈경기에서 FC바르셀로나에 3-1로 우승했다.

이날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간판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 오른쪽 첫번째)는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 유럽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전체 11경기에서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이날 골로 자신이 출전한 정규리그 8경기에서 16득점을 기록해 경기당 2골을 퍼붓는 경이로운 득점력을 과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달 17일 바젤과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부터 이날까지 공식 경기에서 9연승을 기록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 7승1무로 무패행진을 달리다 앙숙에게 뼈아픈 첫 패배를 당했다.

개막 이후 프리메라리가 8경기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았으나 이날 한꺼번에 세 골을 얻어맞았다. 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도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열린 228번째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에 92승48무88패를 기록해 바르셀로나에 우세를 이어갔다. /장병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26일

포항	3	0	상주

△득 = 김재성⑥(후19분) 김승대⑨(후43분) 김형일①(후49분·이상 포항)

전북	1	0	수원

△득 = 김남일②(후27분·전북)

성남	3	4	울산

△득 = 따르따②(전37분) 이호③(후28분) 양동현⑧(후38분) 박동혁①(후40분·이상 울산) 김태환⑤(후2분) 제파로프⑤(후11분) 김동섭③(후22분·이상 성남)

경남	1	0	제주

△득 = 스토야노비치④(후38분·경남)

서울	1	1	부산

△득 = 임상협⑨(전39분·부산) 박희성②(후23분·서울)

인천	3	3	전남

△득 = 디오고①(전1분) 문상윤③(후23분) 진성욱⑥(후34분·이상 인천) 안용우⑥(전15분) 코니①②(후42분·후49분·이상 전남)

프로농구 전적 26일

SK	17	9	15	23	13	77
LG	15	13	17	19	5	69

동부	20	17	18	16	71
삼성	10	15	13	19	57
모비스	12	25	20	15	72
전자랜드	19	12	6	11	48

프로배구 전적 26일

현대캐피탈	2	3	대한항공
IBK기업은행	0	3	흥국생명



HNT 하나투어
H Wedding
그여자, 그남자가 선택한 결혼준비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Marry me?
찾아 오는길
도산공원
국민은행
CGV청담씨네티
학동사거리
호림아트센터
우리은행
이웃백
SB빌딩
강남구청
도산거리
제일은행
신사동
학동역
하나투어 결혼 대박람회
일시 : 2014년 11월 15일(토요일)~11월 16일(일요일)
장소 : 호림아트센터(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거리)
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상담문의 02) 2127-1234
하나투어 고객님은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여행'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하나되는 지구세상